

# 1930年代 滿洲抗日遊擊隊와 農民

-- 共產遊擊隊를 中心으로 --

尹 輝 鐸

<目 次>

- I. 머리 말
- II. 1930年代 滿洲抗日武裝鬭爭의 推移와 抗日遊擊隊
- III. 農村社會 各 地域의 特殊性和 該當 抗日遊擊區의 樣相
- IV. 抗日遊擊隊의 人的·物的 資源 및 對民活動과 農民
- V. 日帝의 對民工作(所謂 '匪民分離' 政策)과 抗日遊擊隊
- VI. 맺 음 말

## I. 머리 말

1930년대부터 본격화한 세계경제공황을 계기로 심각한 자본주의의 모순에 빠진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체의 모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약소민족에 대한 침략의 길을 재촉했다. 이 무렵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서, 이전부터 滿洲<sup>1)</sup>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던 일본도 마침내 1931년 9월 滿洲(東北)에 대해 무력침략을 결행했다. 이것이 소위 「滿洲事變」이다. 이 시기 中國本土에서는 계급모순, 즉 國共間의 치열한 무력투쟁이 政局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본토와는 달리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만주에서는 민족모순이 주요모순으

1) 본고에서는 '滿洲'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拙稿, 「1930年代(1934-38) 北滿洲 農村의 社會構成」(『東洋史學研究』 제35집(1991.1.), p.109)를 참조하라.

로 등장하면서 중국 본토보다도 먼저 항일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어 격렬한 反滿抗日<sup>2)</sup>武裝鬭爭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처럼 反滿抗日運動에서의 무장투쟁의 발전 및 통일전선조직이 중국본토보다도 먼저 결성된 것은 중국 혁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sup>3)</sup> 게다가 이 투쟁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압박민족으로서 조선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지리적·민족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던 만주에서의 中朝 兩民族의 반만항일무장투쟁은 四人幫의 極左的 誤謬<sup>4)</sup>가 是正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의 만주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연구성과가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살펴 보면, 먼저 국내 학계에서는 朝鮮革命軍<sup>5)</sup>, 朝鮮義勇隊<sup>6)</sup> 등 항일무장조직의 결성 과정과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있을 뿐이다. 다음에 중국 학계에서는 주로 延邊의 朝鮮族學者들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이들 연구들은 만주항일무장투쟁을 개략

2) '反滿抗日運動'이라 함은 일본의 괴뢰 '滿洲國'에 반대하고 日本 帝國主義에 대항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괴뢰 '만주국'은 일제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집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기 때문에 反'滿洲國'運動은 결국 抗日運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山口和子, 『反滿抗日運動について』(『言語文化研究(創價大學)』 제1호를 참조하라.

3) 楊松, 『論七年來東北抗日遊擊運動的經驗和教訓』(『解放』 제1권 제34기(1938.4)), p.6 참조.

4) 四人幫 시절의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업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5) 張世胤, 『朝鮮革命軍研究』,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집)(1990).

6) 金榮範, 『朝鮮義勇隊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집)(1988).

7)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姜念東 外, 『偽滿洲國史』(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0); 常城·李鴻文·朱建華, 『現代東北史』(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980); 황봉국 주편, 『조선족혁명투쟁사』(심양, 료령민족출판사, 1988);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집필소조,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9); 조선족략사편찬조, 『조선족략사』(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86);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집필소조, 『연변문화유물략편』(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9); 김동화, 『연변청년운동사』(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8); 王魁喜 外, 『近代東北人民革命鬭爭史』(延吉, 延邊人民出版社, 1986); 김창국, 『남만인민항일투쟁사』(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박창옥, 『조선족혁명명사전(1,2)』(심양, 료령민족출판사, 1983, 1986); 조선학연구편집위원회, 『조선학연구(1,2,3)』(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88-90); 고영일, 『조선족력사연구』(심양, 료령인민출판사, 1988);

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내 및 중국 학계의 연구들은 만주항일무장투쟁의 일반적인 동향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항일무장투쟁의 현상만을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 연구들에는 항일무장투쟁의 內的 構造, 특히 抗日遊擊隊와 農民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통상 만주항일유격대, 특히 공산유격대는 농민들 속에서 人的 資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物的 資源---武器, 衣服, 食糧, 資金 등---까지도 공급받았다. 따라서 만주항일유격대와 농민의 관계가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는 것처럼, 만주항일유격대는 항상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야만 자체의 유지·존속이 가능했다. 그리하여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곧 죽듯이, 만주항일유격대도 농민들과의 접촉이 단절된 채 고립되어 농민들의 인적·물적 지원을 얻지 못하면 곧 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만주항일유격대가 농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만주항일유격대의 발전과 쇠락 또는 소멸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양자 관계의 밀착성 여부는 만주항일무장투쟁의 量的·質的 特性뿐만 아니라 그것의 成敗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여러 양상들에 대한 연구들<sup>8)</sup>이 이미

---

김동화 등, 「연변당사사건과 인물」(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8);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 위원회 문사자료연구위원회, 「연변문사자료(1-6)」(연길, 1983-88); 黃龍國, 「朝鮮獨立軍의 武裝抗爭(1931-1937)」, 韓國獨立有功者協會 編, 「韓國武裝獨立運動에 관한 國際學術大會 論文集」(1988.11);

8) 그 주요한 것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滿州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東京, 御茶の水書房, 1972); 滿州移民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州移民」(東京, 龍溪書舍, 1976);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東京, 時潮社, 1986);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東京, 未來社, 1973); 佐佐木春隆, 「韓國獨立運動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885); 許東燦, 「東滿中共遊擊隊와 反民生團鬭爭」, 韓國獨立有功者協會 編, 「韓國武裝獨立運動에 관한 國際學術大會 論文集」(1988.11).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 학계의 경우 만주항일유격대와 농민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데에 그쳐있고 이 양자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는 없다. 더욱이 이 양자, 즉 만주항일유격대와 농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日帝가 실시한 對民工作(소위 '匪民分離'政策)과 그 공작의 주요 부분인 集團部落政策<sup>9)</sup> 대해서 일본 학계의 연구들은 거의 주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93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집단부락은 이 시기의 항일무장투쟁이 지니고 있는 내적 구조를 밝혀주는 중요한 분석 대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제가 만주항일유격대와 농민을 격리시켜서 前者의 人的·物的 基盤을 파괴할 목적으로 건설한 집단부락에 대한 분석은 이 양자를 이어주고 있던 고리들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 만주항일유격대와 농민의 유기적인 제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먼저 1930년대 만주항일무장투쟁의 일반적인 동향을 살펴본 후, 항일유격대들이 活動地區로 삼고 있던 여러 농촌사회들의 특수성이 그 사회들에 기반을 두고 있던 해당 遊擊區들의 樣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여러 농촌사회들의 특수성이 해당 유격대들의 質的 特性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에 이 유격대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人的·物的 資源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격대들이 취한 對

9) '集團部落政策'이란 治安維持가 곤란한 지역에 있는 村落을 철거하고 치안유지상 유리한 지점으로 住民을 이동시켜 '匪民分離'工作을 실시함으로써, 항일유격대와 일반주민의 연락을 단절시켜서 치안의 유지를 꾀하려고 했던 정책이었다. 다시 말해 항일무장세력이 민중과 강하게 결합해서 이 세력을 排除·絶滅시키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농민을 일정한 구역으로 집합시켜 주위와 단절시킴으로써 항일무장세력을 고립시켜서 소멸시키려는 것을 主目的으로 한 것이 집단부락이었다(田中恒次郎, 「反滿抗日運動」,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東京, 時潮社, 1986), p.371.). 이 정책의 최대 목적은 종래의 자연발생적인 屯을 파괴하고 日滿軍警의 치안유지목적에 따라 새롭게 인위적으로 屯을 만들어 낸 것에 있었다(小林英夫, 『日本の滿洲支配と抗日運動』, 野澤 豊·田中正俊 編, 『講座 近現代史』 제6권(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8), p.248.).

民活動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日帝는 항일유격대와 농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그 추진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제의 對民工作(소위 '匪民分離'政策)에 대한 분석은 항일유격대와 농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줄 것이다.

요컨대 本稿는 이들 항일유격대와 농민의 연결고리들의 實體를 분석함으로써, 1930년대 만주항일무장투쟁의 內的 構造, 다시 말해 만주항일무장투쟁의 質的 特性 및 人的 構成上의 다양한 특성, 그리고 만주항일무장투쟁이 기반을 두고 있던 만주 농촌사회 각 지역의 제 특수성뿐만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에서의 농민들의 역할 및 항일무장투쟁이 농민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1930年代 滿洲抗日武裝鬪爭의 推移와 抗日遊擊隊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주사변은 일제에 대한 만주 민중들의 민족 감정을 폭발시켜 이들 민중들의 항일무장투쟁을 고양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만주 각지에서는 수많은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항일무장조직을 만들어 日帝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反滿抗日運動에서의 무장투쟁의 발전 및 중국본토보다도 통일전선이 먼저 결성된 사실은 이후의 중국 본토에서 실현된 제2차 國共合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滿洲事變을 전후로 한 항일무장투쟁의 양상<sup>10)</sup>을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

10) 항일무장투쟁의 양상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만주사변」 직후 격렬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奉天省, 閩島省 및 賓江省의 일부지역에서는 1936년 초가 되면서 항일무장투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반해 安東省, 賓江省의 동부 및 북부 그리고 三江省에서는 1936년 이후에도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위의 책 『對策』, p.1).

보면<sup>11)</sup> 다음의 네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즉 제1기는 만주사변 이전의 시기(大正 末期부터 1930년)로써 조선인 공산유격대<sup>12)</sup>가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다(間島時代). 제2기는 만주사변 이후부터 1933년 1월 까지의 시기로써 중국인 공산주의 유격대가 운동의 전면에 대두하기 시작했다. 제3기는 1933년 1월 中共 中央의 「1月書翰」<sup>13)</sup>이 새로운 운동지침을 만주에 전달한 이후부터 1935년 8월 中共의 「8·1宣言」<sup>14)</sup>이 공포되기까지

- 11) 참고적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만주지방에서의 항일운동사의 시기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1900년대 초기를 기점으로 하여 1919년 3.13反日示威闘爭과 5.4운동까지의 舊民主主義 투쟁시기, 이후 1931년 「만주사변」 이전 초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新民主主義時代, 그리고 1945년 일본 항복까지의 중국 공산당 영도하의 만주항일전쟁시기,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선포까지의 해방전쟁시기로 나누고 있다(金熙泰, 「武裝抗日獨立運動에 대한 延邊史學界의 視角」,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5집)(1991), p.372.).
- 12)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地盤인 北間島 조선인 농민들은 中共中央이 항일의 기치를 들기 훨씬 전에 항일무장투쟁을 지향하였다. 그들은 1930년 「5·3蜂起」에서 벌써 「遊擊隊」를 형성하였다(姜德相, 『現代史資料』 제30권(東京, みすず書房, 19 ), p.582.). 또한 「만주사변」 이전 北間島에는 초기 형태의 중국공산유격대도 생겨나고 있었다(許東榮, 「東滿 中共遊擊隊와 反民生團闘爭」, 『韓國獨立有功者協會 編, 『韓國武裝獨立運動에 관한 國際學術大會 論文集』(서울, 同協會, 1988), p.377.).
- 13) 1933년 1월 26일 中共中央이 「滿洲省委」에게 보낸 「滿洲各級黨部 및 全黨員에게 보내는 書翰—滿洲의 상황과 우리 黨의 임무를 論함」을 가리키는데, 이 書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日帝의 민족적 억압 때문에 노동자, 농민, 苦力, 小資産階級뿐만 아니라 有産階級の 일부도 日帝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2) 현시점의 만주의 상태는 제1차 國共合作때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全民族的인 反帝統一戰線의 樹立을 제기하고 地主·資本家の 재산몰수나 紅軍, 소비에트의 수립이 아니라, 日帝 및 民族叛徒의 재산몰수와 「民衆革命軍」, 「民衆政權」의 수립을 주장하였으며, 中共 이외의 諸反日遊擊勢力을 「舊吉林軍」, 系統(馬占山, 李杜, 丁超, 蘇炳文)들로서 이 부대에서는 兵士에 의한 통일전선이 필요), 「王德林部隊」(농민, 小資産階級, 노동자의 反日義勇軍으로서 國民黨의 영향이 적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上層統一戰線을 실현할 수 있다), 「各種農民遊擊隊」(大刀會, 紅槍會로서 反動的 지도층에 반대하는 투쟁이 필요)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聯合抗日을 위한 제 조건을 분석하였으며, (3) 통일전선에서의 指導權 문제를 제기했다(池田誠, 「抗日戰爭と中國民衆」(東京, 法律文化社, 1987), p.48 및 上田仲雄, 「滿洲における抗日統一戰線の形成」(『岩手大學教育學部研究年報』 제37권 제1·2호(1977), p.14 참조). 이를 계기로 만주에서는 항일통일전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14) 「8·1宣言」은 제7회 코민테른 대회에서 결정된 反파쇼人民戰線運動에 기초해서 중국공산당이 1935년 8월 1일에 제창한 항일운동으로서 소련의 對日政策의 중요한 일국면을

의 시기로써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유격대가 서서히 퇴조하는 가운데 공산 유격대를 주축으로 한 항일공동전선이 시험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sup>15)</sup> 제 4기는 「8·1선언」 이후의 시기로써 조선인 공산유격대가 퇴조하는 가운데 중국인 共產遊擊隊를 중심으로 한 항일공동전선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sup>16)</sup>

항일무장투쟁의 동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1930년대 초반까지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소비에트운동을 전개하면서 각지에서 중국국민당과 수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주에도 파급되어 在滿共產黨도 계급투쟁과 下層統一戰線을 기초로 만주에서의 소비에트 정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어서 국민당의 영향하에 있는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유격대와와의 제휴가 곤란했다. 그런데 1933년 소위 「1月書翰」을 비롯하여 1935년 「8·1宣言」의 발표와 중국공산당의 운동방향의 전환, 중국본토에서의 항일운동의 발전에 의해 國共 兩黨間의 계급적 적대감이 완화되면서 在滿共產黨은 전략적 목표를 「反滿抗日」과 「人民革命政府의 樹立」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공산당의 혁명전략은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 유격대의 목표와도 거의 일치되어 兩者의 항일공동전선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항일무장투쟁조직인 「東北抗日聯軍」이 성립되면서 1937년 상반기까지 第1軍부터 第11軍까지 「동북항일연군」의 편제가 완성되었다.<sup>17)</sup> 이리하여 공산당의 領導를 받은 「동북항일연군」은 합쳐서 '10

---

형성한 것이다. 이 선언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中國國防政府와 抗日聯軍의 編制를 發議 하였으며, 먼저 國共間의 內戰을 중지하고 모든 國力을 집중해서 抗日救國의 신성한 사업을 위해 분투할 것을 제창했다.

- 15) 滿洲에서의 民族抗日統一戰線의 形成에 관한 연구물로서는 西村成雄, 「中國近代東北地域史研究」(東京, 法律文化社, 1984) 제4절 및 上田仲雄, 「滿洲における抗日統一戰線의 形成」(『岩手大學教育學部研究年報』 제37권 제1·2호(1977))가 있다.
- 16) 西村成雄, 「中國近代東北地域史研究」(東京, 法律文化社, 1984), pp.278-281; 滿洲國軍政部顧問部, 「滿洲共產匪의 研究(이하에서는 「研究」라고 略稱한다)」(제1집)(發行地 未詳, 同部, 1936), p.4; 滿洲國軍事顧問部, 「國內治安對策의 研究(이하에서는 「對策」이라 약칭한다)」(제2집)(發行地 未詳, 同部, 1937), pp.1-2 참조.
- 17) 西村成雄, 「東北의 植民地化와 「抗日救亡」運動」, 池田誠 編著, 「抗日戰爭と中國民衆」(東

大聯軍'이라 불렀는데, 병력은 2만여 명<sup>18)</sup>으로써 경시할 수 없는 항일무장세력으로 성장했다<sup>19)</sup>(〈표-1〉,〈표-2〉 참조). 또한 각지의 항일연군의 주위에는 다른 무장세력이 집결하기 시작하여 각 유격구역내에는 「反日會」, 「農民委員會」, 「青年義勇軍」, 「反日自衛隊」 등의 대중조직이 만들어져 항일투쟁을 계속했다.<sup>20)</sup>

〈표-1〉 東北抗日聯軍編成表(1936-37) (단위: 名)

軍別	軍長	政治委員	成立年月	編制	遊擊活動區域	兵力
抗聯第1軍	楊靖宇 (共)	楊靖宇	1934.3	第1師 第2師	撫松,濛江,長白,臨江,柳河, 金川,通化,桓仁,輯安,興京 樺甸,撫松,敦化,額穆	2,500
抗聯第2軍	王德泰 (共)	魏拯民	1934.3	第1師 第2師	樺甸,撫松,長白,敦化,額穆 敦化,安圖,撫松,樺甸,寧安	2,000
抗聯第3軍	趙尚志  (共)	馮仲雲*	1935.1	第1師 第2師 第3師 第4師 第5師	延壽,方正 濱縣 五常 勃利,密山,虎林 依蘭	6,000

京, 法律文化社, 1987), p.49.

- 18) 앞의 책, 『對策』에서는 1936년 가을까지의 병력수를 약 2만 2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p.1). 또한 姜念東 外, 『偽滿洲國史』(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0)에서는 1937년 여름까지의 抗日聯軍의 총병력수를 통상 3만 5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장 많을 때는 4만 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p.499).
- 19) 위의 책 『現代東北史』, pp.270-71.
- 20) 西村成雄, 『東北の植民地化と'抗日救亡'運動』, 池田誠 編著, 『抗日戰爭と中國民衆』(東京, 法律文化社, 1987), p.49.

抗聯第4軍	李延祿	黃玉清*	1935.2	第1師 第2師	勃利, 密山 虎林, 饒河	2,000
抗聯第5軍	周保中	宋一夫*	1935.2	第1師 第2師	寧安, 東寧, 穆稜, 樺川, 富錦 "	5,000
抗聯第6軍	** 夏雲杰 (政)	張壽籟*	1936.2	第1師 第2師 第3師 第4師	湯原, 樺川, 太平川, 蘿北 " " "	4,500
抗聯第7軍	*** 李學福	-	1936.7	第1師 第2師 第3師	虎林, 密山, 寶清, 富錦, 同江, 撫遠 " "	1,800
抗聯第8軍	謝文東 (政)	劉曙華*	1935.6	第1師 第2師 第3師	五常, 勃利, 樺川 " "	3,500
抗聯第9軍	李華堂 (政)	-	1936.8	-	依蘭	2,500
抗聯第10軍	王雅臣	-	-	-	濱縣, 拉林	1,000
抗聯第11軍	祁致中 (政)	-	1936.11	-	勃利, 富錦	2,000

<출전> 姜念東 外, 『偽滿洲國史』(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0), pp.497-99.

<비고> \*는 政治部主任을 가리킨다.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446에는 1936년 10월 時點으로 \*\*가 夏雲楷로, \*\*\*는 陳榮久로 기재되어 있다. (共)은 공산유격대를 의미하고, (政)은 소위 「政治匪」로서 「東北義勇軍」 계열 혹은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를 말한다.



이처럼 급속하게 성장한 「동북항일연군」은 각 유격지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21) 이들 유격구내에서는 「抗日救國會」 등의 조직이 발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吉東, 南滿, 北滿의 몇몇 縣에서는 「人民政府」가 수립되어 괴뢰 만주정권과 대치하기도 했다. 특히 1937년경에는 三江省의 依蘭·樺川·勃利縣 일대에 항일연군 第3,4,5,6,8,9,11軍이 집결함으로써 이 지역의 농촌과 도시는 완전히 항일연군과 「항일구국회」의 수중에 들어 가

21) 이처럼 「동북항일연군」이 급속하게 발전한 주요 원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는 인민의 항일무장이었기 때문이다. 兵士들은 대부분 농민이었고 그 나머지는 일부의 노동자·수공업자·청년학생·지식인들이었는데, 공산당원·공산주의 청년단원들이 군대의 骨幹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에 대항하려는 만주 인민들의 애국적 정열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에 대한 선전·선동과 조직화를 통해 그들의 계급적·민족적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군중들을 각종의 「反日會」에 참여시켰다. 동시에 조직화한 이들 군중들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항일연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항일연군도 엄격한 紀律 속에서 군중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군중들의 절실한 이익과 요구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遊擊區內에서 인민대표회의를 열고 각종의 苛捐雜稅를 폐지하였으며, 漢奸貪官을 懲治하고 몰수한 재산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둘째 그들은 黨의 통일전선정책을 굳건히 실천해나갔다. 그들은 黨派, 信仰, 出身地, 그리고 과거의 宿怨 등에 관계없이 反日力量을 단결시켜 통일적인 지도하에 협동작전을 펼쳤다. 셋째 그들은 사상교육에 관심을 쏟았다. 즉 그들은 계급적 友愛를 發揚시켰고 軍事上의 민주적 원칙을 실행하였으며, 조직기구를 엄밀히 하여 내부의 침자를 숙청하고 적들의 내부교란공작을 방지했다. 넷째 유격전술을 활용하여 기동력있게 활동하면서 적에게 타격을 가하였다(앞의 책, 『偽滿洲國史』, pp.500-501 참조). 다섯째 당시 만주의 국경을 접하고 있던 소련이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했다. 東京刑事地方裁判所 檢事 미즈모토(井本臺吉)는 1939년 10월 당시의 소련과 滿洲共産黨(軍)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소련은 만주공산당 및 항일연군을 극동소련군의 일익으로서 이것을 외곽세력화할 목적으로 準戰時體制下에 있는 滿洲共産黨(軍)을 장악·정비하고 만주공산당(군)간부의 任免, 공산유격대에 대한 顧問의 파견, 공산유격대의 편성, 장비개편, 활동자금지원, 人蘇共産軍에 대한 군사·정치·첩보훈련의 실시, 공산유격대에 대한 유격전의 지시 등 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원조를 했다. (이것을 통해 소련은) 중국에서 장기간 항일총력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목적으로 在滿日滿軍의 후방파괴 및 견제를 기도하고 「동북항일연군」을 통해 소위 分散逃避戰術에 의한 日滿軍의 수송, 통신망을 파괴하는 한편, 전시대까지 공산유격대의 현존세력을 보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유사시 항일연군을 극동소련군의 유력한 전략적 別動隊로써 이용하려고 했다.”(『滿洲國に於ける最近の共産主義運動に就て』, 社會問題資料研究會 編, 司法省刑事局, 『思想情勢視察報告集』(其の8)(1940.4), p.5.)

기도 했다.<sup>22)</sup>

이처럼 「동북항일연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자, 항일연군을 「滿洲國」의 '治安의 癌'의 要素로 간주한 일본 제국주의<sup>23)</sup>는 1937년부터 「三江省特別治安肅正計劃」을 실행했다. 이 때문에 1938년부터 항일연군은 매우 곤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吉東, 南滿, 北滿의 3省委의 책임자가 모여 정세를 분석한 후, 서서히 戰線을 축소하고 부대의 실력을 보존하며 鬪爭堅持의 방침을 정하고 기존의 각 軍을 3개 路軍, 12개 支隊로 재편했다. 그리하여 「동북항일연군」은 第1路軍(제1,4,7의 3개 支隊), 第2路軍(2,5,8의 3개 支隊), 第3路軍(3,6,9,12의 4개 支隊)으로 축소·재편되어 인원도 감소했다.<sup>24)</sup> 게다가 1942년 초에 黨指導部는 3省委를 합병하여 「東北黨委員會」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기존의 유격방식을 철저히 개편해서 천명도 못되는 병력의 주력을 蘇聯領內에 온존·훈련시키고 小部隊에 의한 게릴라전을 주로 하게 했다.<sup>25)</sup> 이처럼 무장투쟁은 일시적으로 후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주해방기까지 기본적으로 세력의 潛伏狀態에 있었다.<sup>26)</sup>

그런데 1930년대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이들 항일유격대들은 質的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항일유격대들은 각각 人的 構成 및 그에 따른 鬪爭性向, 그리고 사회적·지리적 기반을 달리하고 있었다.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는 1933년 1월 26일 「中國共產黨 滿洲省委員會」에게 보낸 書翰(소위 「1月書翰」)에서 日帝에 의해 「滿洲國」의 '治安의 癌'의 要素라고 불려진 反滿抗日遊擊隊의 類型을 다음의 네가지로 분석하고 있

22) 姜念東 外, 『偽滿洲國史』(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0), p.503 참조.

23) 常城·李鴻文·朱建華, 『現代東北史』(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986), pp.270-71 및 王魁喜·常城·李鴻文·朱建華 共著, 『近代東北人民革命鬪爭史』(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4) [여기에서는 國譯 『東北人民革命鬪爭史』(서울, 참한, 1989), p.166].

24) 앞의 책 『偽滿洲國史』, p.515.

25) 위의 책 『偽滿洲國史』, p.516 및 西村成雄, 『中國近代東北地域史研究』(東京, 法律文化社, 1984), p.278, p.298 참조.

26) 淺田喬二·小林英夫,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東京, 時潮社, 1986), p.352.

었다.<sup>27)</sup>

첫번째 유형은 舊吉林軍部隊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서 張學良의 옛부하 各將領들(馬占山·李杜·丁超·蘇炳文·朱霽靑 등)이 지도하고 있던 항일유격대이다. 國民黨의 지휘에 복종하면서 地主·(都市)부르주아계급과 富農에 의존하고 있던 이들 유격대는 다른 한편 帝國主義(美國)의 영향하에서<sup>28)</sup> 신뢰하기 어려운 動搖性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부대는 광범위한 大衆의 反帝民族革命運動이 高潮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 부대내의 兵士나 대다수 軍官 등의 反日情緒에 떠밀려서, 그리고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sup>29)</sup> 日帝가 자신들의 제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에 抗日戰爭을 수행하고 있었다.<sup>30)</sup>

두번째 유형은 舊吉林軍과 같이 大部隊가 아닌 王德林部隊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이 부대원의 대부분은 農民·小부르주아계급 또는 勞動者의 反日義勇軍이었고 국민당의 영향은 비교적 적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 공산당의 反帝國主義 및 혁명적인 선전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었다.<sup>31)</sup>

세번째 유형은 각종의 農民遊擊隊이다. 이 유격대는 大刀會·紅槍會·自衛團이 轉化한 것으로서 이 부대 안에는 노동자나 소부르조아계급 및 지식인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이 유격대는 정치적으로 미성숙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인 약점 때문에 대다수는 여전히 地主·富農 및 舊吉林軍官의 영향과 지휘하에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혁명세력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sup>32)</sup>

네번째 유형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共匪」라고 불렀던 共產遊擊隊이

27) 이하의 분석은 「中央給滿洲各級黨部及全體黨員的信(소위 「1月書翰」)」(『東北抗日聯軍史料(上)』(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7)), pp.43-44에서 참조했다.

28) 『東北抗日聯軍史料(上)』, p.43.

29) 『東北抗日聯軍史料(上)』, p.43.

30) 앞의 책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433.

31) 앞의 책 『東北抗日聯軍史料(上)』, p.44.

32) 앞의 책, 『東北抗日聯軍史料(上)』, p.44.

다. 이 부대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노동자·농민·革命兵士 및 기타 혁명세력으로 구성되었다. 이 공산유격대는 모든 反滿抗日遊擊隊 가운데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전투적인 항일유격대였다.<sup>33)</sup>

<표-3> 滿洲抗日遊擊隊別 兵力數의 推移(1931-1940) (단위:名)

年 度 別	土 匪	政 治 匪	共 匪	計
1931(滿洲事變直前)	46,000	-	-	46,000
1931(滿洲事變直後)	49,500	170,000	500	220,000
1932	69,150	100,000	850	170,000
1933	36,080	25,000	2,220	63,300
1934	20,800	12,000	3,200	36,000
1935	13,650	7,900	9,200	30,750
1936	13,550	5,800	6,800	26,150
1937	6,400	2,000	6,500	14,900
1938	1,350	-	4,400	5,750
1939	640	-	2,400	3,040
1940	450	-	1,480	1,930

<출전> 關東軍憲兵隊司令部, 『滿洲共產主義運動概史』(1940), p.107[여기에서는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東京, 未來社, 1978), p.434에서 인용].

<비고> 土匪는 農民遊擊隊, 政治匪는 「東北義勇軍」系, 다시 말해 民族主義 系列의 遊擊隊, 共匪는 共產遊擊隊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다양한 항 일유격대들을 지칭하는데 있어서 日帝가 분류해서 命名한 명칭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사변 후의 항일유격대 總數는

33) 앞의 책 『東北抗日聯軍史料(上)』, p.44.

약 30여 만명<sup>34)</sup>으로 추산되었는데, 그 대다수는 舊滿洲軍閥政權의 해체에 따른 애국적인 軍警들의 항일무장조직 및 그러한 운동에 편승한 紅槍會, 大刀會의 봉기의 결과였다.<sup>35)</sup> 만주사변 직후의 만주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은 당시의 李立三路線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조직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1932년 6월의 「北方各省連席會議」에서 소비에트와 紅軍의 창설 등이 제기된 속에서 공산주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했다. 1933년 전반까지의 反滿抗日武裝鬪爭은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政治匪라고 칭해진 「反吉林軍」이나 「東北抗日義勇軍」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었다.<sup>36)</sup> 이러한 항일유격대는 1935년 중공의 「8·1선언」이 나오기까지 대부분 日滿軍의 무력토벌에 의해 급속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1928년에 「中國共產黨滿洲省委員會」를 조직하고 공산주의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만주의 공산당은 만주사변 후의 치안불안, 反滿抗日的 潮流의 격화, 농민의 궁핍 등의 유리한 제 조건에 편승해서 조선인 중심의 민족적 성향의 운동을 벗어나 중국인 중심의 지도권을 확립하고 「反日會」를 기초로 급속하게 대중성을 획득해갔다.<sup>37)</sup> 이처럼 만주에서의 공산유격대가 조직적인 역량을 증대시키기 시작한 것은 1933년 1월의 소위 「1월 書翰」을 中共 中央으로부터 받고 나서부터이다.<sup>38)</sup> 그 결과 1936년까지의 항일유격대수는 양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공산유격대의 세력이 확대되었다.<sup>39)</sup>

그렇다면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사변의 직접적인 餘波가 사라진 이후 政治匪나 土匪의 세력은 격감했는데도, 공산유격대만이 투쟁의

34)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에서는 이 병력수를 3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p.433).

35) 滿洲國 軍事顧問部, 「對策」, p.2 참조.

36) 小林英夫, 「日本の滿洲支配と抗日運動」, 野澤 豊·田中正俊 編, 「講座 中國近現代史」 제6권(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8), p.243.

37) 앞의 책 「對策」, p.2.

38) 小林英夫, 앞의 글, p.243.

39) 滿洲國 軍事顧問部, 「對策」, p.2 참조.

주도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원인은 여러 항일유격대들이 지니고 있던 질적인 특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日帝에 의해 '政治匪'라고 불려졌던 첫번째 유형과 두번째 유형의 유격대는 만주사변 직후부터 만주국의 성립 전후에 걸쳐서 反滿抗日運動의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항일유격대는 광범위한 대중과의 결합이 약한 舊滿洲軍閥將領들의 지휘하에 있던 부대였기 때문에, 日滿軍警의 끊임없는 토벌에 의해 항복하거나 귀순하는 자들이 속출하여 1936년 경까지는 그 세력이 매우 약화되었다.<sup>40)</sup> 다시 말해 李杜나 王德林같은 지도자들은 과거 군벌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정규군에 의한 全面戰에 익숙했다. 더구나 지방에 주둔해 있으면서 인민을 위해 싸우고는 있었지만 일부 병사들은 지방주민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만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중한 부담 때문에, 그들은 다른 곳에서 안식처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유격대라고 하는 것은 각지의 대중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들 유격대들과 대중의 관계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sup>41)</sup> 즉 첫번째 유형과 두번째 유형의 유격대는 대중, 특히 농민들을 기반으로 하지 못하고 주로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월등한 日滿軍警에 의해 쉽게 제압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격대가 만주사변 후의 5,6년 동안에 걸쳐 反滿抗日의 무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滿洲軍閥將領의 지위가 일제의 만주침공으로 매우 불안정해졌고, 둘째로 이 부대내의 병사들의 反日感情이 강했으며, 셋째로 광범위한 중국인민의 반일운동의 고양에 의해 이 유격대의 지도자가 간단하게 항복하거나 귀순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40) 앞의 책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p.433-34.

41) Lee, Chong Sik, *Revolutionary Struggle in Manchuria*, Univ. of California Press, 1983(허원익, 『만주혁명운동과 통일전선』(서울, 사계절, 1989), p.261.).

42) 앞의 책,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p.433-34.

‘土匪’라고 불리는 세번째 유형의 유격대는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민중의 武裝自衛組織인 大刀會·紅槍會·自衛團 등이 轉化한 것이었다.<sup>43)</sup> 이와 관련하여 『馬賊戰記』<sup>44)</sup>에서는 만주사변 이전의 이들 농민유격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馬賊<sup>45)</sup>, 다시 말해 농민유격대는 본디 饑饉나 貧窮의 謀免 또는 각종 범죄의 發露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流賊<sup>46)</sup>이나 山賊<sup>47)</sup> 따위의 도둑떼는 아니라고 한다. 이들 농민유격대는 帝王 등 권력자의 教條로 타락한 儒敎와

43) 앞의 책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p.434-435.

44) 朽木寒三 著, 鄭成煥 譯, 『馬賊戰記』上卷(서울, 汎潮社, 1986)는 1920년경부터 終戰 직전까지 20여 년간 중국 馬賊의 한 사람 또는 일본군 특무기관의 공작원처럼 활약한 일본인 고히나타 겐마츠(小日向權松)의 당시의 활약상을 거의 사실대로 재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시의 馬賊, 즉 농민유격대의 제 실상들을 생생하게 재현해주고 있는 1차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5) 겐마츠에 의하면 일본인은 山賊·流賊과 保衛團=正統 馬賊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모두 馬賊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들을 모두 일본에의 저항세력으로 간주하고 무차별 토벌작전을 벌여서 正統 馬賊=良民을 대량으로 학살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학살행위를 일본인의 커다란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pp.9-10). 또한 그에 의하면 ‘馬賊’을 ‘匪賊’과 혼동해 버리면 馬賊이 적어도 그 세력권내에서는 仁義를 지키는 仁俠의 存在로서 농민들을 保衛한다고 하는 --- 일본의 俠客 仁義와 상당히 상통하는 --- 馬賊道の 일면을 무시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 쉽다고 한다(p.58).

46) 앞의 책 『馬賊戰記』에서는 ‘流賊’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流賊’의 집단은 수수가 무르익는 시기가 지나면 활동을 멈추고 고향에 돌아가 무기를 땅 속에 묻고 보통 농부로 돌아간다. 그들이 묻은 소총, 권총 등의 무기는 두껍게 바른 밀갑 때문에 이듬해 봄에 파낼 때까지 新品과 마찬가지로 녹슬지 않은 채로 보존된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봄에 출동하면 가을에 돌아올 때까지 山野를 돌아다니며 野獸같은 생활을 한다(上卷 p.59).”

47) 앞의 책 『馬賊戰記』에서는 山賊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山賊이라는 것은 ……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있어 지나가는 길손도 여기가 산적부락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이다. 흔히 그들은 때를 지어 마을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곳의 마차대를 습격하거나 다른 부락을 습격하는 것이다. 이때 당연히 하나의 산적부락이 다른 산적부락으로부터 습격을 당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때로 대대적인 약탈이 벌어지면 그 수법은 잔인하기 짝이 없어 저항하는 자는 사살하고 약한 노인과 포로들은 여물을 자르는 작두로 다치는 대로 목을 잘라 죽이고 집들을 불태워서, 그 때문에 글자 그대로 한 마을이 地上에서 소멸하는 일조차 있었다(中卷 p.82).”

달리, 철저히 권력과 맞서 싸우는 민중층의 종교라는 道敎를 정신적 기반으로 삼은 仁敎의 존재로서 山賊·流賊이나 탐관오리들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방 주민 스스로 구성된 무장조직이라는 것이다.<sup>48)</sup>

『馬賊戰記』에 의하면 원래 ‘貪官汚吏’의 害毒 자체가 馬賊<sup>49)</sup> 즉 농민 유격대가 생기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sup>50)</sup> 또한 분석대상 지역은 다르지

48) 위의 책 『馬賊戰記』 上卷, p.9. 또한 『馬賊戰記』에서는 이들 ‘농민유격대와 ‘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그 무렵(만주사변 이전---필자) 민중으로부터 제일 미움받은 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知事였다. 省長이 임명하거나 혹은 중앙에서 부임해오는 知事들의 임기는 매우 짧았다. (그들은) 3년이나 4년이면 교체된다. 더구나 그들은 그 짧은 임기 중의 1년분을 이미 上司에게 뇌물로 바쳐버리고 온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교체될는지 알 수가 없는 임기 안에 황급히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액수의 세금을 縣內的 각 부락에서 거둬들여 손해를 매울 뿐만 아니라 利得도 남기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락의 長老를 적당한 구실로 잡아들여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다. 山賊·匪賊의 이른바 ‘拿票(誘拐)’와 다를 바 없고 그 人質을 미끼로 삼아 부락에서 뇌물을 받아 먹는다. 그 때문에 유격대가 하는 일 중에서 ‘官과의 대결’이 큰 무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유격대는 縣知事를 상대로 뇌물의 액수를 깎는 교섭을 한다. 또 인질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고 또 때로는 무력으로 되찾기까지 한다. 그런 때의 상대자가 武裝警官이고 官兵이다. 대체로 ‘官’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는 모두 비위에 거슬린다. 게다가 官兵 녀석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표, 건장, 官位 등도 죄다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들 유격대는) 이 녀석들이 실제로는 강도나 산적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어 (官에 대한) 경멸을 감추지 않는다(위의 책, pp.99-98).

49) 渡邊龍策, 『馬賊社會誌』(東京, 秀英書房, 1981)에서는 馬賊의 類型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즉 마적의 유형에는 “① 營利를 專業으로 하는 마적, ② 惡德官僚나 土豪劣紳으로부터 良民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義賊의인 마적, ③ 官憲의 馬賊懷柔策에 응해서 官헌에게 歸順招撫되어 일약 大武官이 되려는 야심에서 생겨난 마적(대표적인 예가 張作霖), ④ 官헌의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마적에 투신한 자들, ⑤ 兵으로부터 마적에 투신한 자들이 있었다(pp.83-86 참조).

50) 『馬賊戰記』(上卷), pp.210-11. 이 책에서는 당시 중국의 탐관오리들의 작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당시의 중국관리는 국가나 君主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풍조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蓄財와 一族의 번영을 위해 관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의 뇌물을 마쳐 지위를 산다. 그래서 일단 관직에 오르면 지금까지 쓴 뇌물의 밀천을 되찾고 또 더 많이 벌기 위해 온갖 기회를 노려 농민을 우러내고 있었다. 특히 농민을 직접 상대하는 하급관리아말로 가장 혹독하여 도리니 수치니 연민같은 감정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본 업이어서 다른

만 만주지역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山東省의 경우 「共産要員指針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紅槍會, 大刀會, 連莊會 등은 농민들의 단순한 무장 자위조직이며, 농촌부락에서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사변 이후 그들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유격구의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들의 주요목적은 조세의 강제징수, 그리고 부대나 匪賊團이 초래하는 혼란에 대한 대항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체의 침략에 반대한다. 그러나 적이 침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항하지 않으며 공격을 받을 때에만 싸운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중립적이며 대개의 경우 부유한 농민들에 의해 영도된다.···이들 집단에서 가장 강한 힘은 일종의 미신이며, 그 결과 보수주의가 특히 강렬하다.<sup>51)</sup>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사변 이전 시기의 중국 농촌사회에서 官의 苛斂誅求 때문에 농민유격대들은 스스로 무장해서 官과 대결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되풀이되는 反民衆의인 권력집단들의 탄압과 수탈의 토양에서 생존을 유지해야 했던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反權力的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농민들에게 가해지는 官의 탄압과 가렴주구는 농민유격대들을 출현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했던 것이

---

일반적인 행정은 아무렇진 상관하지 않았다.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는 이른바 '中飽'라고 하는 횡령을 했다. 혹시 새로운 세금이라도 생기면 농민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막대한 中飽를 했다. 임시 軍費같은 것이 있으면 사정없이 액수를 늘려서 거둬들였다. 재판 역시 뇌물에 따라 판결을 바꾸었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의 양쪽에서 뇌물을 받아먹고 액수가 많은 쪽이 이기게 했다. 匪賊을 토벌하는 경우에는 비적에게 탄약과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며, 심한 때에는 군비를 횡령하기 위해 잊지도 않은 討伐戰을 上司에게 보고하기 위해 官兵을 동원하여 良民을 살해하게 해서 몇명의 비적을 토벌했다는 架空의 실적을 조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은 뉘우치지도 않고 독하면 양민을 通匪했다는 혐의로 잡아들여 역시 뇌물을 강요하고 그 금액에 의해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항해서 발생한 것이 連莊會, 保衛團이고 ···유격대였다(위와 같음)."

51) 興亞院 政務部, 『情報』 NO. 44, P.46(여기에서는 Charlmers A.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37-45(서관모 역, 『중국혁명과 농민민족주의』(서울, 한겨레, 1985)), p.117에서 재인용).

다.

한편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이들 농민유격대, 특히 馬賊들은 활발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쟁에 참여했던 한 일본군 장교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遼陽, 千山方面의 馬賊은 猖獗을 極했고……盤山 東方 二道河 부근에서 錦州政府가 조종하는 汲寶純이 이끄는 마적 때문에 무장해제되어 義勇軍의 頭領 老北風·靑山の 무리에게 慘殺의 悲運을 만나…52)

이처럼 농민유격대(소위 馬賊)들이 일본 침략군에 대항했던 것은 일본군이 기존의 탐관오리들과 다름없이 농민들에 대해 갖은 폭압적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의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사변 직후 한때 증가했던 이들 유격대는 日滿軍警의 토벌에 의해서도 政治匪만큼 급격하게 감소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각종의 농민유격대가 日滿軍警의 집중적인 討伐對象으로 되기 어려운 利點을 활용하여 反滿抗日의 무장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농민유격대는 원래부터 村落의 자주적인 무장자위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강고했다. 그런데 이들 유격대는 日滿軍警의 강력한 토벌에 봉착했을 때에는 유격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농촌에 그 조직력을 온존시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농민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日帝에 의해 결정적으로 침해당했을 때(예를 들면 폭력적인 토지수탈)에는 이 농촌의 자위적인 무장집단은 다시 조직력을 顯在化해서 反滿抗日의 무장투쟁을 전개했다.<sup>53)</sup> 이 농민유격대는 反滿抗日의 무장투쟁과정에서 근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유력한 항일유격대로 되어 共匪나 政治匪의 貯水池를 형성하고 있었다.<sup>54)</sup> 그러나 日滿軍警의 전면적인 토벌로 政治匪

52) 片倉衷, 『戰陣隨錄』(東京, 經濟往來社, 1942), p.84.

53) 앞의 책,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p.434-435.

54) 앞의 책, 『研究』, p.620.

가 弱體化하면서 그 지도부를 상실하게 되자, 이 유격대는 유격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농민유격대는 1938년 전후에는 反滿抗日의 무장세력으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농촌 속의 '半農半匪的 住民'으로 되어 그 세력을 온존시켜서 反滿抗日遊擊隊의 '精神的 友軍'의 일부로 되어 反滿抗日鬪爭을 강력하게 전개했던 것이다.<sup>55)</sup>

'共匪'라고 불리는 내번제의 유형, 즉 共産遊擊隊는 天災地變과 각종의 收奪로 인해 궁핍에 허덕이던 농민들을 주요한 세력 기반으로 했다. 당시 만주에서 공산유격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0년 이래의 세계농업공황이 만주에 파급됨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半植民地的·半封建的인 생활 속에 있던 농민들은 극도의 궁핍상태에 빠졌다. 또한 만주사변에 의해 야기된 치안상의 불안은 농민의 궁핍한 상황을 더욱 격화시켜 농민의 무장봉기를 유발했다.<sup>56)</sup> 게다가 일제가 추진한 「土地商租權」<sup>57)</sup>에 뒤이은 「商租權整理事業」<sup>58)</sup> 및 日本人 農業移民用地를 확보하기 위한 土地의 收奪<sup>59)</sup>은 이들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기반마저도 약탈해갔다. 이때 궁핍한 농민들의 처지를 동정하고 그들

55)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435.

56) 앞의 책, 『對策』, P.4.

57) 「土地商租權」이란 일정한 代價를 지불해서 他人의 토지를 使用受益하는 권리를 말한다(淺田喬二, 『滿洲における土地商租權問題』, 滿洲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東京, 御茶の水書房, 1972), p.320). 그런데 商租는 법률개념이 불분명해서 中國側과 日本側 사이에 많은 논쟁을 야기시켰다. 이 권리에는 토지에 대한 使用·收益權만이 포함된다는 前者의 주장과 토지소유권도 포함된다는 後者의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淺田喬二, 『滿洲における土地商租權問題』, pp.325-330를 참조하라.

58) 「商租權整理事業」이란 「滿洲事變」前에 日帝의 토지수탈정책이었던 「土地商租權」 설정이 中國官民의 항일민족운동에 의해 저지되자, 일제가 「만주국」을 수립한 후 식민지적 토지수탈의 일환으로써 소생시키려고 했던 사업을 말한다(淺田喬二, 위의 글, p.319).

59) 日帝는 對蘇防衛次元 및 滿洲에서의 日本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량의 日本人 移民計劃을 추진했다(Kim Ki-hoon, Japanese Policy For Korean Rural Immigration To Manchukuo, 1932-1945, 1992년도 Hawaii대학 박사학위논문, p.125 참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日帝는 만주에서의 대량의 土地收奪을 꾀했다. 이러한 移民用地는 대부분 抗日遊擊區와 對蘇戰略地域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격렬한 항일무장투쟁을 야기시켰다(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東京, 未來社, 1978), pp.397-477 참조).

을 위한 세계상을 펼쳐 보인 것이 공산주의자였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로 전화한 이들 민중들은 주로 「農民委員會」, 「反日會」<sup>60)</sup> 등의 대중단체로 조직되어 공산주의운동의 人的·物的 기초가 되었다. 특히 「反日會」는 항일유격대가 존재하는 곳마다 조직되어 있는 단체로서 공산유격대원의 보충, 공산유격대에 대한 첩보연락, 무기·탄약·식량·피복의 공급, 교통·통신망의 파괴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무장한 農民自衛團을 조직해서 점차 정규군의 활동을 보조하는 세력으로 되었다.

이처럼 농민을 人的 基盤으로 한 공산유격대는 점차 세력을 확대시켜 前述한 것처럼 1935년경에는 反滿抗日武裝鬪爭의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sup>61)</sup> 그렇지만 이 공산유격대도 1936년 전후부터 日滿軍警의 집중적인 토벌 및 對民工作, 소위 「匪民分離」工作에 의해 감소 경향이 있었다. 공산유격대는 反滿抗日活動에 의해 在滿中國人 農民을 정치적·사상적으로 자신들의 지도하에 흡수해 나갔다. 그래서 공산유격대는 原住農民을 「通匪」·「半匪」<sup>62)</sup>化해서 이들을 대중적 기반으로 삼아 활발한 반만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갔다.<sup>63)</sup>

이와 같은 共產遊擊隊와 農民의 긴밀한 조직적 결합은 공산주의 활동에서만 보여지는 특징이었다. 이 특징은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와 각종 농민유격대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쇠락해갔던데 반해, 共產遊擊隊만이 日滿軍의 토벌에 완강한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60) 中國共產黨 中央執行委員會가 「滿洲省委」에 보낸 1934년 「2月書翰」에서는 기존의 「反日會」에 대한 在滿共產黨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反日會」는 원래 反日 人民을 단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들 동지는 종래에 만주에서 關門主義的인 誤謬를 범했다. 예를 들면 左傾的 綱領을 제기하거나 「反日會」를 第2黨의 模型으로 삼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反日會」를 대중조직으로 바꾸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전술한 강령에 찬성하는 人民의 단결을 피할 때 기계적으로 「反日會」의 형식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조직이나 명칭은 모든 人民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앞의 책, 「研究」(附錄), pp.28-29).

61) 關東軍憲兵隊司令部, 「滿洲共產主義運動概史」(1940년), p.87.

62) 일본제국주의는 공산유격대의 지도하에 있는 농민들을 이렇게 불렀다.

63) 앞의 책,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p.435-36 참조.

다.64) 실제로 1935-36년에 걸쳐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각종 항일유격대들의 勢力推移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입증되고 있다.

<표-4> 三江省地域의 抗日遊擊隊들의 勢力動向 (단위; 名, %)

		實 數				百 分 比		
		共 匪	政治匪	土 匪	合 計	共 匪	政治匪	土 匪
1935 年度	1/4 分期	1,059	366	561	1,986	53.3	18.4	28.3
	2/4 分期	1,740	820	426	2,986	58.3	27.4	14.3
	3/4 分期	1,259	552	520	2,331	54.0	23.7	22.3
	4/4 分期	1,375	642	298	2,315	59.4	27.7	12.9
1936 年度	1/4 分期	1,412	709	251	2,372	59.5	29.9	10.6
	2/4 分期	1,766	600	266	2,632	67.1	22.8	10.1

<출전> 三江省公署 警務廳에서 펴낸 『治安月報』의 통계이다(여기에서는 앞의 책 『研究』, p.831에서 인용).

<표-4>에 의하면 1935년부터 1936년 2/4 분기까지 三江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항일유격대들 가운데 공산유격대는 이 기간 동안 53.3%에서 67.1%로 격증하고 있었는데 반해 土匪, 즉 농민유격대들은 28.3%에서 10.1%로 격감하고 있었다.

이들 항일유격대들의 질적 특성은 각각의 유격대가 활동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활동지역의 특수성, 특히 농촌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人的 構成이 필연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항일유격대의 質的 特性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農村社會 各 地域의 特殊性과 그것에 기반을 둔 해당 抗日遊擊區의 樣相에 대

64) 앞의 책 『對策』, p.5.

한 분석이 요구된다.

### Ⅲ. 農村社會 各 地域의 特殊性과 該當 抗日遊擊區의 樣相

전술한 것처럼 일제의 만주침공으로 민족모순이 주요모순으로 등장함에 따라 중국본토보다도 빨리 결성된 만주에서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은 「東北抗日聯軍」을 出產했다. 그런데 「동북항일연군」의 결성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共產遊擊隊가 우세한 遊擊區<sup>65)</sup>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가 공산유격대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항일연군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第1軍, 第3軍). 이에 반해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공산유격대가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에 가입함으로써 항일연군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第4軍, 第5軍, 第6軍=謝文東軍).<sup>66)</sup> 다시 말해 「동북항일연군」은 1933년 전후까지 政治匪·土匪라고 칭해졌던 항일유격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은 각 지역에 주둔하면서 투쟁했던 항일부대로부터 받은 영향의 정도에 따라, 南滿·東滿·哈東地區에서는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北滿에서는 抗日義勇軍<sup>67)</sup>이 주체가 되어 결성되었다는 점이다.<sup>68)</sup>

그렇다면 이처럼 농촌사회 각 지역에 기반을 둔 항일유격대의 질적 특

65) 참고적으로 일본군과 공산군이 동시에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통일적으로 「遊擊區」로 불렸으나, 일본군의 공격시에만 철수하는 지역은 「戰區」, 「根據地」, 「紅區」, 「解放區」 등으로 불렸다. 일본군이 강력히 주둔하고 있어서 공산군의 비밀연락대와 정보부대만 있을 수 있는 곳은 「白區」라고 불렸다(滅共中央委員會調查課, 『察南邊地對日赤化工作實態調查報告書』, 1940.7. [T 993], p.1(여기에서는 앞의 책 「중국혁명과 농민민족주의」, p.113에서 재인용).

66)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東京, 未來社, 1978), p.453.

67) 주로 「東北義勇軍」 계열의 민족주의 성향의 유격대를 의미한다.

68) 小林英夫, 앞의 글, pp.244-45.

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항일 유격구가 지니고 있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사회적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5> 참조). 1936년도 만주에서의 抗日遊擊區는 크게 間島地方, 東邊道地方, 哈東地區, 依蘭地方, 吉東地區, 湯原地方, 饒河地方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間島地方<sup>69)</sup>은 滿洲共產主義運動의 發祥地<sup>70)</sup>로서, 이 운동은 이주한 조선인 농민 속에서 발생했다.<sup>71)</sup> 이 지방에는 可耕未墾地도 많았고 토질도 비옥했으며, 민족구성상 朝鮮人이 압도적인 다수(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수에 불과한 중국인 가운데에는 大地主가 많았고 상공업도 이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舊滿洲軍閥政權時代에는 지배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국인과 조선인은 경제적·정치적·민족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다.<sup>72)</sup> 만주사변 이전에는 歸化朝鮮人만이 토지소유권<sup>73)</sup>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가운데에는 소작인이 많았다. 또한 이 지방에서는 영세농업경영에 기초한 隸農의 分益小作制가 지배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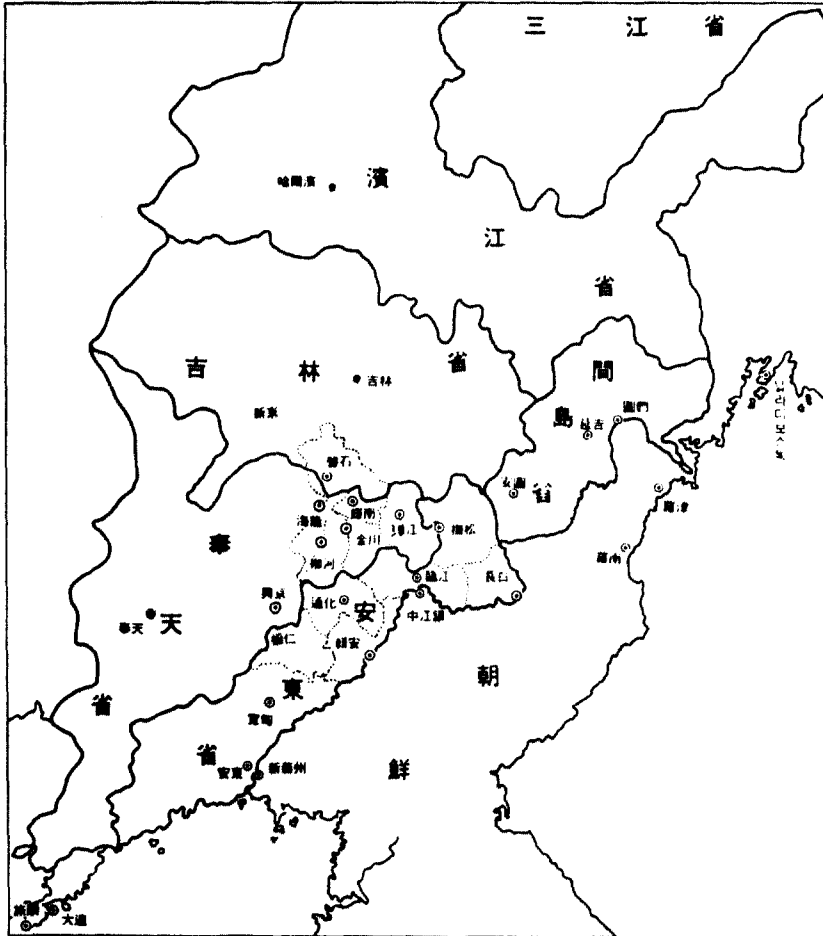
69) 豆滿江 以北지역으로서 延吉·和龍·汪清·琿春의 각 縣을 말한다[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제5권(東京, 原書房, 1976), p.505.]

70) 앞의 책 『研究』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間島가 中日間의 정치적 분쟁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中日 양국 官憲의 탄압에 대해서 하나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동시에 (在滿共產黨이) 中日 양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官憲·地主·高利貸·商人 등의 誅求·抑壓·搾取狀態에 방치된 다수의 조선인 농민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p.151.)”.

71) 위의 책 『研究』, p.128.

72) 위의 책 『研究』에서는 舊滿洲軍閥政權時代의 중국인과 조선인의 관계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p.151.).

73) 吉林省公署 「商租處理暫行辦法」에 의하면, 「만주사변」 이후의 토지소유권문제, 다시 말해 土地商租權問題는 民國4년에 체결된 「南滿洲 및 東部內蒙古에 관한 條約」의 제2조에 의해 土地商租가 허용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토지소유권이 확인되었고 토지상조권이 재확인되었다(『研究』, p.152.). 그러나 토지소유권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在滿朝鮮人の 사회경제적인 생활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研究』, p.154.).



<丑-5> 滿洲國 行政區域圖(1936年)

있기 때문에 자본축적의 여지가 적었다. 그래서 商業高利貸資本의 跳梁이 심하여 地主層에 대한 隸屬化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었다.<sup>74)</sup>

한편 일제는 간도지방에서 大豆 耕作을 중심으로 한 植民地的 單一耕作을 強制하였기 때문에 상품경제가 농촌 깊숙이 침투하였다.<sup>75)</sup> 그런데 1930년부터 본격화한 농업공황의 여파로 인한 곡가의 폭락이 간도지방의

빈약한 농가경제에 가한 타격은 매우 혹독했다. 이때 농업부문의 타격은 대부분 朝鮮人 小作農과 貧農에게 전가되어 하층농민의 생활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1930년에 조선인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5·30暴動」은 상술한 恐慌期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는지도 모른다.<sup>76)</sup> 위와 같이 상품경제의 농촌침투와 농업공황의 타격은 高利貸資本의 寄生에 적합한 토양을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sup>77)</sup> 流通過程에서의 일본자본주의의 농촌지배를 강화시켜, 다른 지방보다도 한층 半封建的인 간도지방에서는 일본자본주의와의 대립관계가 표면화했다. 일본의 상업자본이 유통과정을 확고하게 지배하도록 해준 것은 간도에 진출한 「朝鮮銀行」이었다. 또한 일제는 간도지방에 「東洋拓殖株式會社 間島支店」을 설치하고 不動産金融을 통해 토지를 수탈했다. 따라서 간도의 농민은 다른 지방보다도 일본자본과의 대립을 가장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도지방은 反日運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특질을 그 경제관계 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sup>78)</sup> 그런데 간도지방에서는 일본자본에 대항해서 민족운동을 지도해야 할 민족부르조아지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小作農民(특히 조선인 농민)이 반일운동의 주동자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농민의 반일운동은 동시에 봉건적 착취관계에 있는 朝

74) 앞의 책 『對策』, p.18.

75) 실제로 1930년도 각 지방의 農産物 市場出荷率을 보면, 만주의 평균출하율은 33.2%, 남만주는 32.1%, 북만주는 34.5%, 간도지방은 49.1%였다(鈴木小兵衛, 『滿洲の農業機構』(增補 第6版)(東京, 白揚社, 1939), pp.224-25.).

76) 앞의 책 『研究』, p.75 참조.

77) 위의 책 『研究』, p.132.

78) 앞의 책 『研究』, pp.137-38 참조.

鮮人地主와의 대립으로까지 진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조선민족 내부의 대립관계는 민족적 통일을 파괴하고 민족주의운동을 공산주의운동으로 전화시킨 요인이 되었다.<sup>79)</sup> 따라서 간도의 치안유지 여부는 만주국의 농촌대책이 조선인의 기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다. 다시 말해 만주 농촌의 부흥이야말로 만주치안확립의 관건이었던 것이다.<sup>80)</sup>

<표-6> 各地方別 1戶當 耕地面積表 (단위: 畝)

東 邊 道 地 方	寬 甸 縣	19.2	南 滿 洲 型 平 均	22.1
	輯 安 縣	16.2	中 滿 洲 型 平 均	59.4
	桓 仁 縣	16.8		
	通 化 縣	25.0	奉 天 省	28.9
	興 京 縣	13.0		
平 均	17.9	吉 林 省	57.8	
間島地方 平 均		29.9	黑 龍 江 省	85.2

<출전> 廣瀨進,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る鮮農の特殊性」(『滿鐵調査月報』 제16권 제9호 (1936.9)), p.141 및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제5권(東京, 原書房, 1976), p.526.

東邊道地方<sup>81)</sup>은 항일연군 제1군의 유격구였다. 이 지방은 일반적으로

79) 위의 책 『研究』, p.138 참조.

80) 위의 책 『研究』, p.154.

81) 東邊道는 中華民國政府가 1914년에 공표한 法令에서 東北地方을 奉天省·吉林省·黑龍江省의 3省으로 劃하고 그 밑에 설치된 10개 道의 하나로서 東邊道 밑에는 20개 縣이 있었는데, 滿洲國時代에는 거의 通化省의 9개 縣(通化·長白·撫松·輝南·金川·柳河·濛江·輯安·臨江의 각 縣)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 같다(森崎實, 『東邊道』(春秋社, 1941)). 그러나 東北抗日聯軍史料叢書 『東北抗日聯軍第1軍』(黑龍江人民出版社, 1986)에서는 만주국시대의 동변도로서 거의 寬甸·桓仁·興京·通化·輯安·臨江·長白·撫松·濛江·輝南·金川·柳河·海龍·東豐·西安·清原 등의 16개 縣을 가리킨다고 기술되어 있다(p.52). 즉 동변

산악과 산림지대가 많고 可耕地가 적으며, 可耕地 가운데 既耕地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土質도 良好하지는 못했다. 또한 小作人·自小作人과 같이 토지의 결핍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게다가 <표-6>에서도 보여 주듯이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細分된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영세한 경영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토지의 생산력이 빈약하였고 勞動이나 資本側面에서도 集約化가 거의 행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sup>82)</sup>, 農奴的 착취하에서의 경영의 粗放化 및 1930년 이래의 농업공황과 맞물려 농업생산력은 정체되거나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sup>83)</sup> 뿐만 아니라 교통기관도 발달하지 못하여 중앙의 都邑으로부터 격리되어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도 상품경제의 발달이 미약해서 봉건적·자연경제적인 색채가 강했다. 이처럼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봉건적 성향의 생산관계<sup>84)</sup> 때문에 주민들은 항상 생활상의 위기에 처했으며, 旱水害라도 만나면 곧바로 饑饉에 빠졌다. 게다가 만주사변 후의 치안상의 불안 및 水害 등으로 인해 농민생활은 더욱 더 파괴되어 全住民이 匪化하는 狀態를 야기시켰다. 1933년말 楊靖宇가 이끄는 第1軍 第1師가 南遷한 이래 第1師는 이들 비화한 농민과 결합하여 이들에 대한 계몽과 지도에 의해 공고한 抗日遊擊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sup>85)</sup>

「동북항일연군」 제1군의 人的 構成上的 특징을 살펴 보면 초기에는 운

도지역은 間島 남서부의 南滿 일대의 압록강 이북 지역을 지칭한다. 행정구역상에서 볼 때는 吉林省 남부와 間島省 남서부, 安東省 동북부 및 奉天省 일부 지역을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는 安東省, 奉天省 일대의 南滿 지역을 가리킨다(任城模, 『滿洲國協和會의 對民支配政策과 그 實態』(1990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2.). 이 지방은 구체적으로 安東·興京·通化·鳳城·寬甸·桓仁·臨江·輯安·長白·本溪·灤江의 각 顯을 말한다(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제5권(東京, 原書房, 1976), p.490). 만주국 행정구역의 변천에 관해서는 滿洲國史刊行會, 『滿洲國史』(各論)(東京, 滿蒙同胞援護會, 1970), p.10 및 p.175를 참조하라.

82) 앞의 책, 『對策』, p.17.

83) 廣瀬進,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鮮農の特殊性」, p.146.

84) 東邊道の 農民은 완전히 封建的·農奴的인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제5권(東京, 原書房, 1976), p.530).

85) 앞의 책, 『對策』, pp.17-18 및 앞의 책, 『研究』, pp.479-480 참조.

동의 주도세력이 조선인이었다. 그런데 간도지방과 달리 동변도지방에서는 주민의 대다수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黨의 組織對象도 發生期の 조선인 중심으로부터 중국인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제1군의 지도적 지위가 조선인의 손에서 중국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sup>86)</sup>

哈東地區<sup>87)</sup>는 濱綏線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항일연군 제3군의 유격구였다. 이 지구는 북만주에서 농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의 하나로서 東清鐵道の 부설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북만주의 중심시장인 哈爾濱에 근접해 있었다. 또한 이 지구는 大豆의 세계시장이 확대되면서 開墾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可耕未墾地는 적었고 인구도 많았다. 이 지역에서는 大土地所有者가 토지를 專賣 또는 相續하거나 소작인이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토지가 細分·分散化되는 傾向에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일반적으로 耕作地主와 自作農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地區에서는 상품작물인 大豆의 경작으로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階級分化가 발생하고 토지의 집중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하고 小作農·自作農·雇傭勞動者으로 전락되었는데 반해, 소수의 不在地主인 大地主들이 토지를 겸병하고 있었다. 그 결과 토지를 둘러싼 대립과 상업고리대자본에 의한 諷農化 때문에 농촌내의 계급관계는 항상 긴장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1930년 이래의 농업공황<sup>88)</sup>으로 인한 大

86) 앞의 책 『研究』, pp.394-95 참조.

87) 哈東地區는 葦河·珠河·延壽·五常·賓·阿城·雙城·呼蘭·巴彥·方正의 각 縣을 말한다. 이 지구의 구역 설정은 1935년 9월 21일부의 「東北人民革命軍 第3軍 收編通知書」에 입각해서 濱江省公署 警務廳의 견해에 의한 것이다(앞의 책, 『研究』, pp.694-95).

88) 북만주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도 농업공황의 타격을 더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북만주 지방에서는 半封建의인 大土地所有가 존재하고 있었고 富農의 經營의 선택이 다른 지방보다도 농후했으며, 商業高利貸資本의 활동분야가 더 광범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만주 지방에서는 大豆를 중심으로 한 植民地의 單一耕作化의 과정이 남만주 지방보다는 늦었지만 그 곳보다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富農의·資本主義의 經營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의 후진성과 半植民地의 桎梏에 의해 봉건적 성격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그 결과 농민의 궁핍과 농업의 파괴는 남만주 지방보다도 훨씬 더 참혹했다(『研究』, p.630).

豆·小麥 가격의 폭락과 만주사변으로 인한 치안상의 불안 때문에 경지면적이 축소되었고 役畜을 빼앗겼으며, 수확량도 감소되었고 副業收入도 없어서 경작농민은 더욱 더 궁핍해졌다.<sup>89)</sup>

<표-7>은 이 시기 북만주 농민의 생활이 더욱 더 궁핍해지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북만주 농촌에서는 1929년 농업공황을 획기로 농민들의 수입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적 궁핍이 심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북만주의 농업지대는 공산당이 활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으로 되었다.<sup>90)</sup>

<표-7> 哈爾濱市價에 의한 播種面積 1陌當 平均收入額의 狀況

(단위:哈大洋)

年度別	穀類	野菜	家畜·家禽	乾草	計	指數
1922	62.70	3.95	3.64	0.31	76.56	45.8
1927	14.90	7.24	6.66	0.57	140.29	83.9
1928	37.02	8.63	7.95	0.69	167.31	100.0
1929	100.08	6.30	5.80	0.50	122.19	73.0
1930	75.57	4.76	4.38	0.38	92.27	55.2
1931	66.68	4.20	3.87	0.33	81.41	48.7
1932	59.09	3.72	3.43	0.30	72.15	43.1
1933	46.97	2.96	2.72	0.23	57.30	34.3

<출전> 앞의 책 『研究』, p.626.

<비고> 「哈大洋」이란 당시의 貨幣名이다.

哈東地區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은 1930년 전후부터 水田을 경작하는 소

89) 앞의 책, 『對策』, pp.19-20 참조.

90) 앞의 책 『研究』, p.623.

수의 조선인을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만주사변 이후에는 급격히 확대되어 1933년에는 공산유격대가 성립되었고<sup>91)</sup> 1935년 8월에는 「동북항일연군」 제3군(軍長 趙尙志)으로 편성되었다<sup>92)</sup>. 계급적인 색채가 농후한 이 地區의 공산유격대는 민중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1936년 초이래 만주에서의 抗日共同戰線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산유격대의 활동이 활발했던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이 地區가 만주 농업경제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농촌의 계급관계가 긴장상태에 있었다는 것, 북만주 경제의 중심지인 哈爾濱 뿐만 아니라 「中國共產黨滿洲省委員會」의 所在地에 근접해 있었으며, 또한 北鐵을 통해 소련의 정신적·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들 수 있다.<sup>93)</sup>

<표-8> 1935년도 哈東遊擊區內 各遊擊隊의 出身別 人的 構成  
(단위:名)

		舊滿洲軍	自衛團	土匪	工人·農民	不明	合計
共匪系	第3軍	-	182	-	601	595	1,378
	義勇軍系	101	-	-	-	-	101
	土匪系	152	353	72	-	232	809
	合計	253	535	72	601	827	2,288
政治匪		403	204	-	201	315	1,123
土匪		346	314	42	279	1,400	2,381

91) 앞의 책, 『對策』, p.20.

92) 常城外, 『現代東北史』, p.265.

93) 앞의 책, 『對策』, pp.20-21.

總 計	1,002	1,053	114	1,081	2,542	5,792
-----	-------	-------	-----	-------	-------	-------

<출전> 1935년 10월 鐵路總局警務處 編 『匪首名簿』에서 작성한 것이다(여기에서는 『研究』, pp.659-61에서 인용).

합동유격구내에서 공산유격대가 항일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지구내에서의 각 유격대의 出身別 人的 構成上의 특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표-8>에 의하면 각 유격대의 數的 비율에서 土匪가 약 41%, 共匪가 약 40%, 그리고 政治匪가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듯이 土匪의 수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政治匪 가운데 302명(전체 유격대수의 5.2%), 土匪 가운데 739명(전체 유격대수의 12.8%)이 共匪系에 가입함으로써 제3군의 영향하에 있는 유격대의 비율은 약 58%였다.<sup>94)</sup> 이러한 수적 비율은 哈東 遊擊區內에서의 항일투쟁의 지배권이 제3군의 수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에 각 유격대의 인적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 보자. 먼저 공산유격대의 경우 「동북항일연군」 제3군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의 주요대상은 政治匪보다도 土匪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共匪계 가운데 土匪계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土匪가 共匪의 貯水池<sup>95)</sup>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共匪系는 노동자·농민 및 自衛團<sup>96)</sup>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주의 공산당운동이 자주적인 프롤레타리아운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만주의 농민폭동과 소련에 기초를 둔 프롤레타리아운동의 결합형태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政治匪는 舊滿洲軍 출신이 대다수를, 土匪는 구만주군과 自衛團 출신이 대

94) 위의 책 『研究』, p.662.

95) 위의 책 『研究』, p.662.

96) 延吉縣 茶條溝 仲坪村의 集團部落의 경우 自衛團은 義務制로서 18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앞의 책 『對策』, p.39). 따라서 계급 혹은 계층에 따른 人的 構成과는 관계가 없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依蘭地方은 謝文東, 明山, 李華堂, 李延祿 등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유격대가 주로 활동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開墾의 進歩度가 낮았고 인구가 희박하여 未耕地가 많았다. 또한 耕作地主나 自作農이 비교적 많았는데 이들이 농업경영의 중심이 되었다. 상품작물인 大豆·小麥의 경작이 많이 행해지고 있어서 상품경제의 침투가 상당히 강했지만 다른 지방만큼 계급분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토지가 저렴하고 풍부했으며,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阿片耕作을 할 수 있어서, 극도로 제한된 규모의 토지소유를 매개로 파생하게 되는 계급분화의 성격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통기관이 불편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업고리대자본의 횡포는 심했지만, 농민들은 저렴하고도 풍부한 토지가 있고 아편을 경작할 수 있어서 다른 지방만큼 피폐하지는 않았다.

만주사변 후에 생겨난 이 지방의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유격대는 만주국이 성립된 후 일제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인 침략, 특히 土地買收와 日本農業移民問題에 반대해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계급분화가 미미한 이 지방에서는 다른 지방과 달리 地主·富農이 중심이 되어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30년대 중반에는 공산유격대의 抗日人民戰線運動이 발전함에 따라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유격대는 점차 그 編制下에 흡수되어 갔다.<sup>97)</sup>

吉東地區<sup>98)</sup>는 항일연군 제5군(軍長 周保中)의 유격구였다. 이 地區에서는 토지를 開放한 시기가 짧아 投機的인 大土地所有者가 거의 없었고 移住民이 적었으며 未開墾地가 풍부했다. 그 결과 自作農民의 비율이 비교적 많았는데 이것은 小作料의 騰貴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sup>99)</sup> 그리고 이 지구에서는 교통기관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품경제의 침투가 비교

97) 앞의 책, 『對策』, p.21.

98) 이 地區는 寧安·東寧·穆稜의 각 縣을 말한다(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p.489).

99) 앞의 책 『研究』, p.333.

적 늦었다.<sup>100)</sup> 그에 따라 封建的 自給經濟의 경향이 강해서 대규모의 富農經營은 발달하지 못했다. 이처럼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地區가 恐慌으로부터 받은 타격은 北滿洲만큼 크지는 않았다.<sup>101)</sup> 이상과 같이 이 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내에서의 토지문제나 계급관계는 그다지 긴장되어 있지 않았고, 공산주의 활동도 일부의 朝鮮人을 중심으로 만주사변 전부터 행해졌지만 그다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다만 만주사변 후 이 지방이 王德林部隊가 지배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抗日意識의 뿌리가 깊었다. 그런데 王의 部隊가 몰락한 후 그의 敗殘兵을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공산유격대가 가담해서 「反日聯合軍」 第5軍을 형성했다가 항일연군 제2군의 일부가 합류하면서<sup>102)</sup> 1936년 2월에 「동북항일연군」 제5군으로 편제되었다.<sup>103)</sup>

湯原地方은 제6군(軍長 夏雲楷)의 유격구였다. 이 지방은 산림이 많고 인구가 희박해서 農耕이 진전되지 못했다. 따라서 농업의 중심층은 경작에 종사하지 않는 大地主와 소수의 小作農 및 自作兼小作農이었다. 만주사변 전부터 공산주의 활동은 있었지만, 上記한 자연·지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거의 발전하지 못하다가 1930년대 중반에 항일연군 제3군의 流入과 抗日共同戰線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그 세력이 확대·강화되었다.<sup>104)</sup> 이처럼 湯原地方에서 새로운 유격대가 성립된 것은 다수의 金鑛勞動者와 농민이 유격대에 투신한 결과였다. 또한 많은 中小地主가 反日同盟에 가입해서 유격대를 지지한 것도 그 한 원인이었다.<sup>105)</sup>

饒河地方은 항일연군 제4군(軍長 李學萬)의 유격구였다. 이 지방은 인구가 희박했고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饒河·虎林·密山の 各縣에 걸쳐

100) 앞의 책 『現代東北史』, p.255.

101) 위의 책 『研究』, p.333.

102) 앞의 책, 『對策』, p.21.

103) 앞의 책 『現代東北史』, p.255.

104) 앞의 책, 『對策』, p.22.

105) 앞의 책 『研究』, p.755.

있는 國境地帶에는 조선인이 많았다. 공산주의운동은 이들 조선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렇지만 이 지방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신장은 거의 담보상태에 있었다.<sup>106)</sup>

공산주의 활동이 정체상태에 빠졌던 구체적인 원인으로서 洮河縣의 경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李學萬部隊의 주체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인 민중에 대한 공작이 불충분했다. 둘째로 당시에 조선인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소련으로부터 도피해온 국제적인 롬펜이나 정치적인 무능력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운동에 대해 오히려 불감증 상태에 있었다. 셋째로 饒河縣은 농민의 대다수가 地主·自作農이었다. 또한 이 지방은 만주에서도 가장 良質의 阿片을 산출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반 농업은 아편재배에 대해 副業의인 관계에 있었다. 그 결과 일반농민은 수입에서 유리한 阿片栽培<sup>107)</sup>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有福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sup>108)</sup> 다만 이 지방에서는 蘇聯側의 정신적·물질적 지원과 阿片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反政府的 傾向 때문에 공산주의 활동이 계속되었다.<sup>109)</sup>

다음에 密山縣의 경우 공산주의운동이 진전되지 못한 원인은 첫째 未耕地가 많고 自作農도 비교적 많아서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계급관계가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둘째로 地主·自作農이 농촌사회의 중심세력을 구성하고 있었고 민족주의 계열의 李杜部隊가 만주사변 이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은 일본인 移民의 入植豫定地로 지정되어 全縣面積의 80%

106) 앞의 책 『對策』, p.22.

107) 1상當 阿片의 純益은 36.50圓인데 비해 小麥과 大豆의 純益은 각각 8.08圓, 4.32圓이었다(『研究』, p.906).

108) 앞의 책 『研究』, p.719. 阿片을 耕作하는 이들 自作農은 실제로 농업기업가였고 다수의 계절적 농업노동자를 고용한 雇傭主였다(『研究』, p.904). 실제로 여름의 아편재배시기에는 아편경작을 목표로 한 다수의 고용노동자·상인 등을 포함하여 6,7만명이 이 지역으로 쇄도하고 있었다고 한다(『研究』, p.913).

109) 앞의 책, 『對策』, p.22.

가 入植用地로 수탈당하여 주민의 60% 이상이 「滿鮮拓植株式會社」의 小作人으로 전락됨으로써 주민의 생활이 불안해졌다. 그 결과 이 지방에서는 계급의식을 떠나 항일의식이 농후했다.<sup>110)</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密山·虎林·饒河 각 縣의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유격대,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에 의한 反滿抗日運動이 점차 조직화되어 발전해갔다. 특히 1935년에 李延錄部隊(政治匪)가 密山으로 돌아온 것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를 중심으로 항일을 위한 공동 통일전선으로서 제4군이 형성되었다.<sup>111)</sup>

이처럼 항일유격대는 농촌사회의 자연지리적 환경, 계급구성, 독특한 收入源(특히 阿片)의 有無에 따라 질적 특성을 달리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농촌사회의 특수성에 의해 양상을 달리했던 항일유격구의 성격이 해당 항일유격대의 질적 특성에 반영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표-9>이다. <표-9>는 三江省에서 제3군이 형성했던 新遊擊區와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가 우세했던 유격구를 대비한 것이다.

<표-9> 耕作形態에 따른 遊擊區別 農村社會構成(1936년 6월)

遊擊區別	地主	地主·自作	自作	自作·小作	小作	1戶當面積	
共遊擊匪區	通河縣	6.0	-	31.4	19.7	43.0	10.5
	方正縣	7.3	17.4	20.4	-	54.9	6.3
	鳳山縣	10.6	8.6	1.8	-	79.0	1.4
政遊擊匪區	依蘭縣	1.3	6.3	32.4	47.6	12.4	13.4
	樺川縣	22.3	17.2	32.4	4.6	23.5	10.2
	勃利縣	0.6	25.0	27.6	26.9	19.9	4.4

(단위: %畧) <출전> 앞의 책 『研究』, pp.902-903.

110) 앞의 책 『研究』, pp.741-42 참조.

111) 앞의 책 『研究』, p.721.

<표-9>에서도 알 수 있듯이 共產遊擊區에서는 농촌의 계급분해가 진전되어 小作農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中小地主(地主兼自作) 내지 自作農의 비중이 적다. 이것은 토지를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계급적 대립이 심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해주는 것이다. 또한 1호당 경지면적이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구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은 공산유격구의 경제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구에서는 自作農 또는 自作兼小作農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호당 경지면적도 비교적 크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계급적 대립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9>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급적 대립의 정도가 크고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공산유격대가 형성된 데에 반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다음에 공산유격대를 주축으로 창건된 제3군의 유력한 유격구였던 哈東地區와 민족주의 계열 및 농민유격대의 주요유격구였던 東滿의 間島省 安圖縣, 吉林省 敦化縣·額穆縣을 대비해 보면 이들 양자의 계급구성이 판이하게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哈東地區에는 北滿洲 농촌의 일반적 특질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존재했다. 그 특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수의 半封建的 大土地所有者가 경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 對極에는 토지가 전혀 없거나 약간의 토지를 지닌 농민이 광범위하게 존재해서 토지소유를 둘러싼 계급적 대립이 격화하고 있었다. 둘째로 한편에는 낙후된 富農經營이 존재하였고 다른 한편에는 專業的인 농업노동자가 다수 존재해서 농업경영을 둘러싼 부농과 농업노동자의 계급적 대립도 첨예화하고 있었다. 셋째로 생산물의 상품화율이 높고 농업경영의 화폐의존도도 높아서 商人高利貸資本의 활동분야가 광범했다. 넷째로 이상과 같

은 조건 속에서 몰아닥친 농업공황은 농민의 飢餓狀態를 견딜 수 없게 했다. 이에 반해 安圖·敦化·額穆 등 東滿 3縣의 특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지방에서는 토지소유가 불균등해서 小作에 관계하고 있던 農家は 농가 총호수의 7,8할이었지만, 大地主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주의 대부분은 중소지주였다. 둘째로 영세규모의 경영이 지배적이어서 부농경영은 발달하지 못하였고 농업노동자의 수가 적어서 농업경영을 둘러싼 계급적 대립은 그만큼 격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 東滿의 3縣에서는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을 둘러싼 계급적 분화·분해의 정도가 낮아서 계급적 대립도 그만큼 침체화하지 않았다.<sup>112)</sup>

요컨대 이들 유격대들의 질적 특성은 그들의 활동지역, 즉 遊擊區가 지닌 자연·지리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특수성 그리고 遊擊區民의 人的 構成上의 特質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산유격구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상품경제가 발전함으로써 농촌사회내의 계급분화가 진전되어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을 둘러싼 계급적 대립이 심화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민족주의 계열 및 농민유격구에서는 대체로 공산유격구의 특성과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농촌 각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결국 항일유격대의 人的 構成, 鬭爭 性向, 社會像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 IV. 抗日遊擊隊의 人的·物的 資源 및 對民活動과 農民

前章에서 살펴 본 것처럼 만주의 항일유격대들은 해당 농촌사회들의 특수성에 의해 자체의 질적 특성이 규정되었다. 다시 말해 유격대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당 농촌사회내의 항일유격구의 특수성들에 의해 항일유

112)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454.

격대들은 질적 특성을 달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물이 있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항일유격대들은 항일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人的·物的 資源의 供給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했다. 本章에서는 이들 항일유격대들이 농민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었으며, 또한 농민들이 항일유격대들에게 그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해주었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다.

항일유격대가 항일활동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격대원들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보충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항일유격대들이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던 기반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 보자.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초기에는 온마을이 몽땅 참여한 해방구 전체의 투쟁이었으며, 거기에서는 아이들도 부모나 형제 자매에 이어서 兒童團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sup>113)</sup>

1930년대 만주항일무장투쟁의 主力인 「東北抗日聯軍」은 원래 농민의 武裝自衛組織인 遊擊隊, 赤衛隊 등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중조직의 구성원이나 黨의 영향하에 있는 군중으로부터 흡수된 隊員을 根幹으로 했다. 이때 공산주의 활동의 대중적 기초를 이루고 있던 조직은 거의 「農民委員會」와 「反日會」였다.<sup>114)</sup> 「동북항일연군」이 지니고 있던 인적 자원의 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몇몇 부대들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먼저 제1군 유격구의 경우 아래의 보고 내용은 「反日會」가 유격대원의

113) 和田春樹 著, 이종석 譯,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pp.173-74. 그러한 兒童團 가운데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 유격대에 참가한 소년도 있었다. 그러나 少年連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것은 일본군의 三光作戰에 의해 마을이 불타고 해방구가 파괴되었을 때 부모가 일본군에게 살해당해 孤兒가 된 아이들이었다. 그러한 소년소녀들은 유격대 외에는 살아갈 곳이 없었다.(위의 책, p.173-74.). 이들 아이들은 항일유격대의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114) 小林英夫, 앞의 글, p.246. 참고적으로 1934년 5월의 통계에 의하면, 南滿의 盤石地區의 경우 농민의 80%가 「農民委員會」나 「反日會」에 가입했다고 한다(李鴻文, 「東北抗日遊擊區與遊擊根據地概述」, p.78.). 더욱이 東滿의 汪清縣 大甸子根據地の 「反日總會」(「反日會」의 연합기구)는 실제로 抗日政權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민중들은 「반일회」를 통해 婚姻, 土地, 地租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李鴻文의 글, p.84.).

排出口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通化縣 西高麗城子 反日會長 郝恒財는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6단장 劉王鳳의 內意를 받아 農民自衛隊·少年連·青年義勇軍 등의 조직에 힘써 1935년 7월경 同部落에서 于某·潘某 및 자신의 4男 郝福實의 3명을 紅軍에 가입시켰다.<sup>115)</sup>

또한 홍군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홍군 공작원이 농민들에게 은밀히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다음의 예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紅軍 第5團 遊擊隊 第2支隊長 蔣文葆는 柳河縣 第5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선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가정이 매우 빈곤했다. 마침 1935년 4월 초순에 자신의 집 부근으로 홍군 제5단 유격대 第2支隊가 이동해 왔을 때 당시에 同部隊와 함께 행동을 하고 있던 金指導員으로부터 홍군 입대를 권유받아 입대했다.<sup>116)</sup>

紅軍 第5團 模範隊 指導員 金命福은 1934년 4월 초순 紅軍 政治委員 韓有漢 이 大牛溝에 宣傳하기 위해 왔을 때 그의 권유를 받아 입대했다.<sup>117)</sup> 혹은 土匪를 改造시켜서 紅軍兵士로 보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홍군은 상당한 기간 자신의 영향하에 土匪를 엄중하게 감시하면서 土匪로 하여금 단체훈련과 활동을 같이하게 하는 동시에 紅軍精神의 침투 정도에 따라 비로소 土匪를 紅軍에 편입시켰다.<sup>118)</sup> 그밖에 홍군의 大部隊가 부락을 습격할 때 壯丁을 강제로 徵募하거나 青年을 납치해서 유격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유격대에 편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sup>119)</sup>

115) 위의 책 『研究』, p.372.

116) 위의 책 『研究』, p.396.

117) 위의 책 『研究』, p.396.

118) 위와 같음.

119) 위의 책 『研究』, p.396 및 p.196 참조.

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36년 4월 28일 額穆縣 官地 東北方 약 60리에 있는 半截溝와 寧安縣의 大小溝에서 공산유격대가 부근의 自動車道路를 수리하고 있는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苦力을 납치해서 유격대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者들에게 38式 小銃 및 탄약 200발을 지급했다.<sup>120)</sup>

다음에 제2군의 경우 당초에 東滿의 共產黨이 민중 사이에 조직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黨員이나 團員 혹은 일반조직원 속에서 대원을 선발하거나 모집해서 보충했다. 그리고 제2군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다른 유격대원들을 흡수했다.<sup>121)</sup> 이 때 제2군이 유격대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衛兵委員會」였다. 당시에는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직접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곤란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예비조직으로서 항일연군의 지휘하에 일반민중으로부터 정예분자를 획득해서 유사시의 징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sup>122)</sup> 그밖에 항일연군은 소위 土匪나 政治匪의 대원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유격대원의 보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sup>123)</sup>

제3군의 유격구에서도 「反日會」는 유격대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南滿反日會鬪爭綱領」을 보면,

군중을 「人民革命軍」(「東北抗日聯軍」의 前身) 혹은 抗日軍隊에 참여하게 하고 反日戰線을 확대·강화시켰으며, 「인민혁명군」이 적을 습격할 때 이것을 원조하거나 무장을 탈취하여 工人義勇軍·農民義勇軍·學生義勇軍·青年義勇軍을 조직한다.<sup>124)</sup>

120) 위의 책 「研究」, p.196.

121) 앞의 책 「研究」, p.196.

122) 위의 책 「研究」, P.196.

123) 위의 책 「研究」, P.197.

124) 앞의 책 「研究」, p.672.

라고 하듯이, 「반일회」는 군중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항일유격대에 참여시키거나 직접 각종의 抗日義勇軍을 조직해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共產遊擊區內에서는 徵兵制가 실시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家口에 2명 이상의 청년이 있을 때는 1명씩을 강제로 徵募해서 전투부대에 편입시킨다(雙城縣 第9區).<sup>125)</sup>

沿線街站列車를 습격할 때에는 각 戶마다 반드시 壯年 1명을 소집해서 이들에게 총을 주어 入隊시킨다(凉水泉子, 黃泥河子).<sup>126)</sup>

공산유격구내의 주민 가운데 1戶에 2명의 형제가 있을 경우 1명은 농경에 종사하게 하고 1명은 공산유격대원으로서 활동하게 한다.<sup>127)</sup>

다른 부락을 습격할 때에는 공산유격구내의 각 戶에서 1명을 참여시킬 의무를 지운다(大石河 南黃泥河子).<sup>128)</sup>

상술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항일유격대는 「反日會」나 「衛兵委員會」 등의 예비조직을 통해 유격대원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遊擊區內에서의 徵募나 宣傳을 통한 自願入隊 및 政治匪나 土匪와 같은 다른 유격대원들을 改造해서 유격대원들을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 항일유격대는 강제수단으로써 청년들을 납치해서 유격대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유격대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政治匪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滿洲軍閥軍은 종종 농민유격대를 정규군으로 승격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두가지의 길이 있었다. 하나는 請負制로서 豪族이나 豪農의 용감한 자가 自費로 募兵해 가지고 오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무

125) 앞의 책 『研究』, p.673.

126) 위의 책 『研究』, p.674.

127) 위와 같음.

128) 앞의 책 『研究』, p.674.

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有力者가---필자) 어느 군벌한테서 '開材費'라고 하는 군자금을 받아서 우선 한번 돈벌이를 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sup>129)</sup> 정규군에 가담하는 경우이다.

한편 항일유격대들은 항일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物的資源, 다시 말해 食糧·武器·彈藥·衣服 등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물자들을 조달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 보자.

일반적으로 공산유격구에서는 유격구내의 민중조직인 「農民委員會」·「反日會」·「人民革命政府」 등이 물자를 제공해서 항일연군의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다.<sup>130)</sup> 그 예로써 제4군의 유격구내에 조직된 「반일회」의 활동상에 대해 살펴 보면

항일부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항일부대에 식량·의복을 공급하는 동시에 各隊의 連絡·偵察 등을 無報酬로 하며, 항일부대에 대한 여러가지 害惡을 제거하고 항일부대가 목적으로 하는 혁명을 수행하는 데 助力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sup>131)</sup>

反日會員은 회비로서 1개월에 5錢을 납부하고 그밖에 아편 수확시기에는 아편 1兩을 납부한다. 이 아편은 제4군 가운데 전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게 위로금 및 치료비로써 급여하게 한다.<sup>132)</sup>

라고 하듯이, 「반일회」가 유격대를 유지시키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산유격대는 反日會員으로부터 救國捐

129) 앞의 책 『馬賊戰記』 中卷, pp.119-120.

130) 참고적으로 제4군의 유격구에 조직된 「反日會」의 목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반일회」는 反滿抗日主義에 입각해서 혁명군을 조직한 李學萬部隊(제4군)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 부대에 식량과 의복을 공급하는 동시에 각 부대간의 연락, 정찰 등을 無報酬로 하고 이 부대에 미칠 害惡을 제거하고 이 부대가 혁명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앞의 책 『研究』, p.737).

131) 滿洲帝國 各縣旗參事官 執筆, 『滿洲帝國地方事情大系(三江省 饒河縣 篇)』(滿洲帝國地方事情大系刊行委員會, 1935), p.106.

132) 앞의 책 『研究』, p.737.

으로써 阿片이나 現金을 모았는데 이 경우에는 收取證을 발행했다.<sup>133)</sup> 또한 공산유격대는 유격구내에 兵工廠과 被服廠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했는데, 前者에서는 私製銃器 및 手榴彈을 제조하거나 다른 무기의 제조·수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후자에서는 혁명군의 의복과 모자를 제조하고 있었다.<sup>134)</sup>

「동북항일연군」 제2군의 경우

車廠子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유격대 등은 1935년 …… 教化縣 大石頭 및 福里河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각각 5명씩과 安圖縣 寒蔥溝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3명 등 13명을 選定해서 大石頭와 教化에서 말에 식량을 실어서 1개월마다 평균 3회씩 운반하게 하고 小麥粉 1부대당 6원 50전씩을 지불했다.<sup>135)</sup>

四方頂子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2군은) 1935년 12월 上旬頃에 필요한 식량을 安圖·樺甸·撫松의 각 縣內에 散在해 있는 부락에서 구입하거나 阿片賣却金 및 人質 몸값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구입했다. 또한 軍服用的 白木棉은 朝鮮의 茂山 三長방면에서, 棉·地下足裝·藥品類는 모두 威鏡南道 甲山邑에서 四方頂子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이용해서 몰래 구입하게 했다.<sup>136)</sup>

최근에 衣類·日用品의 대부분은 教化·額穆·安圖 각 縣의 奧地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위협·희유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각 縣城에서 구입하게 했다. 이들 중국인 중에는 지방의 甲長이나 百家長 등도 있고 의식적으로 通匪行爲를 하는 者도 있다.<sup>137)</sup>

고 하듯이, 공산유격대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구입자금을 주어 자신들이 필요한 각종 물자들을 조달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공산유격대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영도하고 있는 농민으로 하

133) 앞의 책 『研究』, p.737.

134) 李鴻文, 「東北抗日遊擊區與遊擊根據地概述」, pp.84-84 및 앞의 책 『研究』, pp.207-208 참조.

135) 앞의 책 『研究』, p.211

136) 위와 같음.

137) 위의 책 『研究』, p.211.

여금 根據地 부근이나 日滿軍警의 힘이 미치지 않는 산간벽지에 阿片<sup>138)</sup>이나 기타 농작물을 재배<sup>139)</sup>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확보하거나<sup>140)</sup> 아편의 매각을 통해 물자구입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밖에 공산유격대(다른 유격대들도 포함해서)는 산간벽지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阿片密作者나 木材伐採業者 및 人蔘採取業者들의 작업을 日滿軍警이나 다른 匪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代價를 자신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sup>141)</sup>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공산유격대는 非強制的인 물자조달방법을 원칙으로 했지만 때로는 強制的인 방법도 사용해서 물자를 조달하고 있었다. 즉 공산유격대는 資產家들에 대해서 反日資金을 提供해주도록 요청하거나 人質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때 만일 資產家들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日滿走狗’로서 단정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그들을 살해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공산유격대는 일반 민중에 대해서는 土匪와 같은 무조건적인 약탈<sup>142)</sup>을 행하지 않고 선전·선동에 의해 民心을 얻으려고 힘썼다.<sup>143)</sup> 그밖에 日滿軍警의 끊임없는 討伐과 集團部落과 같은 日帝의 ‘匪民分離’政策 등의 실시로 자원조달통로가 좁아지게 되면서

138) 특히 1936년 6월 하순 安圖縣境에서 개최된 抗日聯軍 제1군·제2군의 회의에서는 食糧難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각 부대가 粟(양귀비)栽培에 의한 자금조달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위의 책 『研究』, p.214.).

139) 공산유격대의 식량조달을 맡고 있던 人民革命軍 第2軍 第1師 第1團은 安圖縣 車廠子에 根據하면서 1935년 이래 자금자족을 목적으로 각지에서 농경을 행했다(위의 책 『研究』, p.214.).

140) 실제로 1935년 10월1일 南滿特區 人民革命政府籌備委員會가 공표한 ‘通告令’의 규정에 의하면, “南滿特區內의 민중은 수확량의 1/10을 軍糧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李鴻文, 「東北抗日遊擊區與遊擊根據地概述」, p.80.).

141) 앞의 책 『研究』, pp.214-16 참조.

142) 이것과 관련하여 앞의 책 『馬賊戰記』 上卷에서는 土匪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유격대(즉 土匪)는 雜多한 族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날의 살인자, 납치기, 좀도둑, 官兵 출신, 無賴漢 출신, 浮浪者 출신 등도 적지 않아 모두 점잖은 人稱은 아니다. 敵의 지역에 들어가면 약탈이나 강도질도 하고 불량배들과 싸우기도 한다”(p.143.).

143) 위의 책 『研究』, pp.216-18 참조.

공산유격대는 縣城·村落·集團部落·列車·自動車 등을 습격해서 물자를 조달했다. 이러한 공산유격대의 습격행위는 단순히 物資獲得이라는 의미 이외에 '反滿抗日運動'이라는 정치적 의의까지도 지니고 있었다.<sup>144)</sup>

항일연군 제1군의 경우도 필요한 물자를 대량으로 有産階級으로부터 징수하거나 紅軍의 영향하에 있는 지방농민으로부터 징수했으며, 그밖에 阿片稅 등을 통해 물자구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鴨綠江 上流地域의 木材伐採者에 대해 부과한 稅金도 한때는 중요한 財源이기도 했다.<sup>145)</sup>

武器와 彈藥의 경우 항일연군은 주로 民間에 隱匿된 것을 購入하거나 入手했는데, 滿洲國이 민간의 무기를 회수함에 따라 이러한 방법이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항일연군은 滿軍·警察隊의 무장을 해체시키거나<sup>146)</sup> 警察署·自衛團을 습격해서 무기와 탄약을 확보했다. 또한 항일연군은 匪賊 출신으로서 滿軍이나 警察隊 속에 편입되어 기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滿軍이나 경찰대원을 이용하거나, 장기간의 토벌로 지친 兵士에게 선전·선동을 해서 무기와 탄약을 입수하기도 했다.<sup>147)</sup> 즉 항일연군은 민간인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그것의 대부분을 만주국의 군경에 대한 회유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충했던 것이다.<sup>148)</sup> 그밖에 항일연군은 소규모의 土匪가 지닌 무장을 해체시키거나 토벌 부대를 습격해서 무기와 탄약을 보충했다.<sup>149)</sup>

다음에 제3군의 財源調達通路를 살펴 보면, 제3군은 赤色地域內 민중으로부터 財源을 징수하거나 「反日會」를 통한 유격구내의 민중으로부터 투

144) 常城·李鴻文·朱建華, 『現代東北史』(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1986), p.262 및 앞의 책 『研究』, p.218.

145) 앞의 책 『研究』, p.407.

146)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通匪關係를 유지하고 있던 滿軍이나 警察隊 중에는 저항하지 않고 무장해체에 응하는 경우도 있었다(앞의 책 『研究』, p.403.).

147) 위의 책 『研究』, pp.402-403.

148) 「最近滿洲に於ける共產運動概況(續)」,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編, 『思想彙報』 제8호(1936. 9), p.85.

149) 앞의 책 『研究』, PP.402-403 참조.

쟁자금 및 식량을 수집했으며, 그밖에 유격구내의 일본제국주의 및 그 走狗의 재산몰수를 통해 물자를 확보했다.<sup>150)</sup>

상술한 사실들을 고찰해 보면 항일연군은 첫째 赤色地域 및 유격구내의 민중조직을 통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거나, 둘째 혁명군에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구입자금을 제공하고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원을 확보했으며, 셋째 일본제국주의 및 그 走狗들(주로 資產家들)의 재산몰수를 통해 재원조달의 통로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밖에 공산유격대는 滿軍·警察隊·土匪 등에 대한 각종 선전·선동을 통해 무기와 탄약 등을 확보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의 물자조달방법 가운데 첫째, 둘째 항목은 공산유격대의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강대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민중 속에 상당히 침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산유격대에 대한 部落民의 상당한 好意와 그에 따른 소위 '通匪'行爲가 전제로 되는 것이다. 이때 부락에 잠입해 있는 공산당원·反日會員 등은 공산유격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부락민이 여기에 응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sup>151)</sup> 實例로 饒河縣의 경우 「요河縣 管内 特務概況 報告」에 의하면,

(당시에) 궁핍농민은 안으로 縣稅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었고 밖으로는 匪賊의 약탈을 받으면서 약간의 토지경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貧農 가운데 共匪의 逆宣傳에 편승해서 共匪가 된 者가 실로 2백 여 명에 이르렀다. 縣内の 匪賊 7백명 가운데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匪賊들이 수백명 있는데, 이것은 빈궁한 농민이 匪化한 결과이다.<sup>152)</sup>

라고 하듯이, 대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貧農들이 공산유격대의 선전·선동에 의해 공산유격대에 가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7년말 유격대의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 검찰관 오카모

150) 위의 책 『研究』, p.675.

151) 앞의 책 『研究』, pp.213-14.

152) 앞의 책 『研究』, p.733.

도 고이찌(岡本吾市)에 따르면 紅軍의 선전은 일반대중, 특히 청년층을 겨냥했다. 공작원들이 선전활동을 벌이면서 강조한 것은 빼앗긴 땅(즉 滿洲)의 回復, 救國, 愛民이었으며, 공산주의적인 선전은 그 후의 일이었다. 또한 滿洲國의 각종 보안기관들은 인민을 노예화시킬 뿐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들은 反滿洲國思想을 주입시킨 후 공산주의를 선전했다. 혁명이 완수된 후 토지와 재산은 (인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며 민생안정도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층 주민들은 일본과 만주국 부대의 활동을 포착하는대로 보고해야 하며, 홍군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푸짐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sup>153)</sup>

또한 오까모도에 의하면 마을사람들에 대한 공산유격대의 행동은 모범적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다니면서 식량구입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 그들은 결코 약탈행위에 간여하지 않았지만 친일분자나 親滿洲國分子는 발견 즉시 약탈하였다. 피폐해진 농촌에 주둔하기 위해 모든 부대는 하루치 쌀·밀가루·옥수수를 가져왔다.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식량담당장교가 곡물을 구입해와 민간인에게 음식을 요리하게 했다. 그러나 강제로 식량을 징발할 때도 있었다. 군인들에게는 봉급이란 것이 없었으며, 장교·사병할 것 없이 같은 음식을 먹었다. 빼앗은 물건들은 각 부대에 나눠주거나 팔아서 군비에 충당했다. 노획한 곡물은 때때로 農民自衛隊나 反日會會員들에게 맡겨 저장하기도 했다.<sup>154)</sup>

모든 대원들은 행동강령 10가지를 외우고 다녔으며, 이것을 통해 유격대의 행동을 보강하였다. 이 강령들은 엄격히 이행되었음이 분명하다.<sup>155)</sup>

153) 岡本吾市, 「中國共産黨と滿洲の共匪」, 司法省 刑事局 編, 「思想政勢視察報告書:4 滿洲の共産主義運動」( ), pp.63-65(여기에서는 이정식 저, 허원 역, 『만주혁명운동과 통일전선』에서 인용).

154) 岡本吾市, 앞의 책, pp.71-72.

155) 이정식 저, 허원 역, 『만주혁명운동과 통일전선』(서울, 사계절, 1989), p.286.

그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대중을 확대하는 사람은 징벌에 처한다.
2. 무기를 損壞하는 사람은 징벌에 처한다.
3. 적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처형한다.
4. 여자를 강간하는 사람은 처형한다.
5. 전선에서 탈영하는 사람은 처형한다.
6. 총기를 가지고 탈영하는 사람은 처형한다.
7. 탈영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징벌에 처한다.
8. 무기를 은닉하는 사람은 처형한다.
9. 지시가 없는데도 재산을 약탈하는 사람은 징벌에 처한다.
10. 목숨을 걸고 일본과 만주국에 저항한다.<sup>156)</sup>

즉 위의 강령에 의하면 공산유격대원들에게는 대중에 대한 확대·강간·재산의 약탈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카모도에 의하면 유격대원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유격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었다고 한다. 장교들은 부대 안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時事問題를 부하들에게 설명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黨과 青年團의 대표들은 부대지휘자들을 도와주었다. 장교들은 부하들이 대중들을 구타하거나 확대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부대원들은 곤경에 빠져서도 인내하며 계급의식을 가지라는 사상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革命歌를 부르면서 일본과 만주국에 대한 저항의지를 불태웠다.<sup>157)</sup>

아래와 같은 오카모도의 진술은 당시에 ‘공산유격대와 농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根據地의 주민들은 叛徒들을 반기는 기색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선전을 믿었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였다. 일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반도집단에 동참하였다. 대체로 인민들은 반도집단들에게 호의적인

156) 岡本吾市, 앞의 책, pp.52-53.

157) 위의 책, p.73.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을 도왔다. 대중에게 끼친 紅軍의 영향력은 예상을 훨씬 초과했다. 홍군의 추종단체는 「反日會」와 「抗日農民自衛隊」이다. 대중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집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민간) 당국의 힘이 그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도들과 인민들의 관계는 매우 친근하며 둘을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이다.<sup>158)</sup>

즉 위의 진술에 의하면 공산유격대와 농민의 관계는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친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유격대와 농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를 다음과 같은 공산유격대의 對民行動守則<sup>159)</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 民家에 들어갈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출발할 때는 萬事가 이상이 없게 하라.
2. 집을 청결히 하라.
3. 人民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그들을 거들어 주라.
4. 빌린 것은 모조리 돌려줘라.
5. 망그러뜨린 물건은 모두 수리해라.
6. 산 물건에는 定價대로 돈을 지불해라.
7. 위생 제일, 변소는 민가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만들라.
8. 포로를 죽이거나 포로로부터 약탈하거나 하지 말라.

상술한 것처럼 다양한 항일유격대 가운데 공산유격대만이 농민으로부터 호감을 사게 된 원인은, 哈東遊擊區內에서 각종의 유격대들이 민중에게 보낸 '物資要求狀'의 回數와 內容 및 농민들에게 부과한 稅率에 대한 분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표-10>抗日遊擊隊의 系統別 物資要求回數, 要求對象者의 身分別 統計 및 稅率表

158) 위의 책, p.70.

159) 이것은 中共 八路軍 傳單 속의 내용이다(앞의 책 『馬賊戰記』, 下卷, p.235에서 인용).

系 統 別		回 數		身 分 別					稅 率
		實 數	%	1	2	3	4	계	
共 匪 系	第 3 軍	2	3.3	-	-	2	-	2	1戶當 8角-1元 - - -
	義勇軍系	-	-	-	-	-	-	-	
	土匪系	10	16.3	8	-	2	-	10	
	합 계	12	19.6	8	-	4	-	12	
政 治 匪		4	6.6	1	1	2	-	4	1畝地當 5元
土 匪		41	67.2	18	14	5	4	41	1畝地當 5.5元
不 明		4	6.6	3	1	-	-	4	-
總 計	實 數	61	100.0	30	16	11	4	61	-
	%	-	-	49.2	26.2	18.0	6.6	100.0	-

<出典> 앞의 책 『研究』, pp.676-77, pp.682-83에서 작성.

<備考> 要求對象者の 身分別 項에서 1은 愛護村長, 百家長, 自衛團長이고, 2는 村民, 3은 商務會長, 公司, 工務長이며, 4는 苦力頭이다. 稅率의 경우 비교 가능한 元단위만을 추출한 것으로써 政治匪, 즉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는 2개 부대의 평균치이고, 土匪는 6개 부대의 평균치이다. 集計期間은 1935년 4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때가 유격대의 가장 왕성한 활동기간이다.

<표-10>에 의하면 각 유격대가 보낸 物資要求狀의 件數 가운데 土匪의 건수가 약 67%를 차지하고 있고, 共產遊擊隊系는 약 20%에 불과하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 「동북항일연군」 제3군이 보낸 물자요구장의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土匪系 共產遊擊隊가 차지하고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순수한 공산유격대는 대중들에 대해 물자를 거의 요구하고 있지

않았는데 반해, 土匪는 대중들에게 수시로 필요한 물자를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각 유격대가 물자를 요구한 대상자의 신분을 살펴 보면, 물자공급을 요구받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약 75%)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小都市의 商業高利貸資本家 혹은 日本帝國主義 및 그 走狗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유격대의 유형별로 살펴 보면, 먼저 순수한 공산유격대는 소도시의 상업고리대자본가들에게 약간의 물자를 요구하고 있었을 뿐 일반 농민에게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데 반해, 土匪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愛護村長·百家長 등의 親日地主 및 富農뿐만 아니라 가난한 일반 농민에게도 수시로 필요한 물자를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들 유격대가 농민들에게 부과한 稅率을 보면, 제3군의 그것은 1戶當 8角~1元인데 비해, 政治匪나 土匪의 그것은 1畝地當 각각 5元, 5.5元이다.<sup>160)</sup> 이때 제3군의 주요한 활동근거지인 通河·方正·鳳山縣<sup>161)</sup>의 1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3.1畝<sup>162)</sup>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政治匪나 土匪의 세율은 1戶當 15元 이상이 되므로 공산유격대의 그것보다 15배 이상이나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세율을 不等號로 표시하면 공산유격대 <政治匪 <土匪의 順으로 土匪의 세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다.

<표-10>에서 나타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순수한 공산유격대는 대중들, 특히 농민들에게 거의 물자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반해, 土匪는 대중들, 특히 농민들에게 수시로 물자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부과한 세율도 무척 높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土匪의 掠奪的 性向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밖에 공산유격대에 가담한 土匪 출신의 유격대(소위 土匪系 共匪)는 순수한 土匪만큼 대중들에게 커다란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

160) 이것을 「滿洲國」의 稅率과 비교하면, 地方土地稅는 각 縣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畝當 1元 5分(五常縣), 2元(葦河縣)이었고, 여기에 國稅 1元 6角 5分~5元 5分이 附加되었다(위의 책 『研究』, p.684.).

161) 앞의 책 『研究』, p.833.

162) 위의 책 『研究』, pp.901-902의 <제8표>「自小作別農家戶數表」에서 산출.

만 아직도 土匪의 性向을 拂拭시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농민들이 공산유격대에게 상대적으로 好感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쉽게 할 수 있다.

물자조달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제 유격대들의 행동 양식이다. 공산유격대와 政治匪는 家屋을 燒却시키는 행위는 많았지만 人質을 납치하거나 家畜을 약탈하는 일이 매우 적었다. 공산유격대와 政治匪는 일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白色區域을 습격할 때 전술로써 주로 資產家나 친일분자의 家屋을 많이 燒却<sup>163)</sup>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64)</sup> 이에 반해 土匪는 앞의 두집단과 거의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土匪의 무기·탄약의 공급원이 인질납치와 가축약탈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서도 土匪의 약탈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공산유격대는 다른 유격대와 달리 농민들에 대한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게다가 공산유격대는 끊임없이 항일구국의 신념을 대중들에게 고취시키고 있었다.<sup>165)</sup> 공산유격대가 보여준 모범적인

163) 이러한 행위는 주로 白色地區에서 전술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주로 親日分子의 家屋에 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164) 이 사실은 濱江省公署 警務廳이 발행한 『匪賊月報』에 의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앞의 책 『研究』, p.705에서 인용한 것이다.

165) 일본 검찰관 오카모도는 공산유격대가 민중들에게 고취시킨 항일 선전의 예들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일본 강도들이 표독스러운 이빨로 東北 3省(滿洲)을 급습했다. 그리하여 만주의 대중들이 곤경에 빠졌다. 악마 일본의 억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민이 만주의 혁명군과 하나가 되어 일본악마를 몰아내고 자유스럽고 평등한 만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2) 당신은 조국을 잊어버렸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서 일어나 일본 통치의 압박에 항거하자! 3) 왜 일본을 두려워 하는가? 깨어 일어나 조국을 위해 일본과 맞서 싸우자. 손에 손에 총을 들고 일본에 저항하자. 4)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항일조직을 만들자. 5) 온 만주에 우리의 조직이 있다. 우리의 조직은 진정으로 일본에 맞서 敎國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강하다. 온 마을 사람들은 혁명군과 손잡고 맹세코 항일투사가 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든 마을을 온통 잿더미 속에 잃고 말 것이다. 6) 흥건은 만주를 회복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여 만주의 대중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흥건에 동참하고, 모든 대중은 하나 되어 우리를 도와야 한다. 7) 이미 일본 제국주의 군대는 길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부락에 불을 질렀으며 인민을 집단부락 속

행동은 政府軍이든 匪賊團이든 과거 중국의 무장병력이 보여준 행동방식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반 농민들은 匪賊들보다도 정부군을 더 두려워했다. 비적들은 적어도 약탈하고 납치할 대상을 선별했으며,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아내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잔인한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정부군은 법을 집행한다는 미명 아래 제멋대로 인민들을 괴롭혔다. 비적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목표물로 삼지 않았지만 정부군은 아무나 희생물로 삼았다. 더욱이 만주군 별군을 물리치고 점령군으로서 만주에 군림하게 된 일본군도 중국인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중국농민들의 눈에는 일본군도 과거의 군벌군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비쳐졌다.

만주의 奧地에 사는 농민들은 匪賊들뿐만 아니라 滿洲軍閥軍·日本軍·滿洲國軍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들은 모두 농민들에게 고통과 치욕만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난생처음 자기들을 약탈하지도 않고 집을 불태우지도 않으며, 毆打와 強姦을 하지 않는 무장부대와 접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유격대는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주장을 내세웠고 그들의 복지를 염려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들을 선동하여 유격대를 지지하도록 할 필요도 없었고 선전을 벌일 필요도 없었다. 유격대가 그들의 결

---

에 살게 만들었다. 그들은 공중에서 (부락 위에) 폭탄을 떨어뜨려 대중들을 살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8) 만주는 중국의 일부이다. 우리 민족해방군은 일본 계국주의가 약탈 전쟁을 통해 수립한 만주국을 타도하고 만주의 대중들을 끈공과 기아에서 구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 모든 중국인의 의무이다. 9) 일본군은 시골까지 침입하여 선량한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인민의 적이다. 공산당이 참된 친구이다. 10) 모든 일본놈들은 돈을 긁어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 한다. 11) 우리 공산당은 일본과 만주국 군대에 저항하는 군대이다. 우리는 만주를 되찾아 만주의 대중들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청년들이여, 총궐기하여 나서자. 12)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부자의 재산이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되어 빈부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야 비로소 인민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직업에 만족할 것이다. 러시아인들이 만주로 들어와 전 만주는 공산화될 것이다. 러시아의 힘으로 평화스러운 만주를 건설할 것이다(岡本吾市, 앞의 보고서, pp.63-65).

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격대가 민족적 감정에 호소한 것도 큰 힘을 발휘했다. 대중들은 富의 평등한 분배가 정말 좋은 것이라는 사실에 쉽게 공감했던 것이다.<sup>166)</sup>

요컨대 滿洲軍閥軍·日本軍·滿洲國軍, 그리고 다른 항일유격대와와는 달리 공산유격대는 만주 농민들에 대해 폐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치욕으로 점철된 농민들의 처지를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항일구국의 신념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줄 새로운 社會像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 결과 공산유격대만이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 속에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공산유격대만이 다른 세력들과는 달리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에 대한 식민통치를 공고하게 해야 할 日帝에게 시급하게 제기된 과제는 이들 공산유격대를 농민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들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對民工作, 특히 '匪民分離' 工作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V. 日帝의 對民工作(所謂 '匪民分離' 政策<sup>167)</sup>)과 抗日遊擊隊

前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항일유격대, 특히 공산유격대는 농민들과 구분

166) Lee, Chong Sik, 앞의 책, pp.361-62.

167) 日帝의 '匪民分離' 政策은 地域的 匪民分離政策(集家工作-集團部落建設, 無住地帶의 設定)과 鄉村 內部的 匪民分離政策(保甲制度, 檢問, 檢察, 檢舉, 居住證明書의 發給, 物品 購買證의 발급, 노동자의 團束, 河川의 단속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田中恒次郎, 「反滿抗日運動」,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日本帝國主義의 滿洲支配』(東京, 時潮社, 1986), p.365.).

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갔다. 만주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괴뢰 만주국을 건립한 日帝는 이들 공산유격대를 '滿洲國 治安의 癌的 要素'로 인식하면서 諸般對策을 수립해나갔다.

즉 일제는 때때로 유격대와 농민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에 유격대를 토벌하는 데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따라서 엄밀한 戶口調査를 통해 소위 不良分子의 이동상황을 추적하여 농민의 遊擊隊化(소위 匪化)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했다.<sup>168)</sup> 특히 일제와 만주국은 古來의 제도로서 전해온 保甲制度<sup>169)</sup>를 실시하고, 이 보갑제도로 하여금 入屯者의 감시, 屯內의 不良分子(反日分子)의 적발 및 移動者의 보고, 武器의 회수, 戶口調査時의 보조적 활동, 연락·명령의 전달, 村費의 징수, 賦役徵發時의 斡旋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sup>170)</sup> 다시 말해 일제는 보갑제도로 하여금 遊擊隊를 소멸시키는 데에 있어서 尖兵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게다가 일제와 만주국정부는 항일활동세력을 겨냥하여 1932년 11월에 「暫行懲治叛徒法」 및 「暫行懲治盜匪法」을 공포하고<sup>171)</sup> 항일활동을 탄압하였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공산유격대가 다른 항일유격대와 달리 꿰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주도권을 확보해나가지, 일제와 만주국정부는 본격적으로 공산유격대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즉 일제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연군」을 철저히 소멸시키고 만주에서의 그들의 식민통치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광대한 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 즉 만주를 확보하기 위해 1936년 봄에 3년간(1936.4~1939.3)에 걸친 「滿洲國治安肅清計劃大綱」, 소위 「三年治安肅正計劃」을 수립하였

168) 앞의 책 「滿洲國史」(總論), p.330.

169) 保甲制度의 구체적인 실태에 관한 자료로서는 다음의 善生永助, 「吉林省永吉縣의 保甲行政組織と其의 運營狀態」(「滿鐵調査月報」 제15권 제12호(1935.12))를 참조하라.

170)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農村社會生活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新京, 同局, 1937), pp.156-57.

171) 위의 책 「滿洲國史」(總論), p.329.

다. 그리고 일제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三江·濱江·吉林·間島의 4省과 安東·奉天의 兩省의 일부분을 重點地區로 정하고,<sup>172)</sup> '治標(軍事討伐)'와 '治本('思想工作', '匪民分離', 民心の 파악과 안정을 주로 한 工作<sup>173)</sup>)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침을 취하여 공산당 및 공산당이 영도하는 「동북항일연군」을 소멸시키고자 했다. 게다가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의 各級「警務統制委員會」를 설립하고 關東軍 憲兵隊 司令官, 憲兵分隊長 혹은 일본영사관 경찰서장이 각자 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일제는 상술한 계획을 실시할 때 年度에 따라 時期와 地區를 나누고 「治安肅清要綱」을 제정했다. 예를 들면 일제와 만주국 통치자는 1936년도 제2기 「治安肅正工作要領」 속에 치안숙정의 주요지구를 만주 동부지구, 특히 東邊道地帶로 규정하고 창끝을 직접 「동북항일연군」 第1路軍으로 돌렸다. 1936년 10월부터 만주국 軍政部 最高顧問인 사사키(佐佐木)의 계획하에 대량의 滿洲國軍을 소집하고 만주국 第1軍管區 司令官인 于琛장이 總司令에 취임하여 通化·輯安·臨江·長白·撫松·甯江·輝南·金川·柳河 등의 縣에서 「北部東邊道治安工作」, 즉 만주국군의 「東邊道獨立大討伐」을 전개했다.<sup>174)</sup> 이러한 일제의 大討伐作戰으로 1937년경에 「동북항일연군」은 제1군을 제외하고 三江省지역에 집결하게 되었다. 항일연군을 성공적으로 토벌하지 못하는 한 중국과의 全面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한 일제와 만주국정부는, 그 해 7월에 「三江省特別治安肅正工作」을 수립하고<sup>175)</sup> 치안숙정의 중점을 松花江과 牡丹江 하류의 三江省으로 돌렸다. 1939년에는 이러한 치안숙정의 방향이 다시 南滿洲로 향했다.<sup>176)</sup>

위와 같은 치안숙정계획의 일환으로써 日帝와 滿洲國政府는 軍事討伐

172) 西村成雄, 「東北の植民地化と「抗日救亡」運動」, 池田 誠 編, 「抗日戰爭と中國民衆」(東京, 法律文化社, 1987), p.53 및 앞의 책 「現代東北史」, pp.286-87.

173) 西村成雄, 위의 글, p.53.

174) 위의 책 「現代東北史」, p.287.

175) 西村成雄, 앞의 글, pp.53-54.

176) 앞의 책 「現代東北史」, p.287.

이외에 警備通信網을 확충하고 警備道路를 整備·修築하였으며,<sup>177)</sup> ‘集家并屯’과 無住地帶化를 시행하기 위해 대량의 集團部落(소위 ‘集家工作’)을 건설했다.<sup>178)</sup>

만주에서의 集團部落<sup>179)</sup>은 1933년 朝鮮總督府에 의해 間島地方에 건설된 것이 嚆矢인데, 일제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집단부락의 건설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하나는 治安維持機能인데, 이것은 散在해 있는 마을이나 住居地를 根絶시킴으로써 ‘匪民을 分離’하여 농민의 自衛力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농민의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集家村落到에 의해 농민경제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의 교육이나 문화를 향상시키고 행정기능을 철저화하기 위한 것이다.<sup>180)</sup>

실제로 만주에서 건설된 集團部落은 1935년의 1,172개에서 1938년에는 12,565개로 급증하였는데, 그 중의 대다수는 1937년 이후에 수축된 것이다. 1938년 이후 일제는 대다수의 집단부락의 防備施設을 강화시켰으며, 경찰이나 自衛團<sup>181)</sup>을 증설하였다. 게다가 일제는 집단부락에 소총을 지

177) 日帝는 도로와 철도 주변의 나무나 옥수수, 수수와 같이 키 큰 농작물들을 베어내 200-500미터 이내는 탁트이게 만들거나 그러한 식물의 재배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화·전신시설을 보강했다(蘭星會, 『滿洲國軍』(東京, 1970), p.403, p.413 및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總論)(東京, 滿蒙同胞援護會, 1970), p.329.). 그리하여 항일 유격대들이 도로와 철도 주변에 매복해서 그것들을 파괴하거나 통신망을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했다.

178) 앞의 책 『東北現代史』, p.287 및 西村成雄, 앞의 글, p.54.

179) 집단부락은 주민을 종래의 부락에서 퇴거시켜 30, 50호에서 150호까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부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집단부락의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정방형이고, 주위는 100m 간격으로 포대를 배치하여 壕, 土壁, 철조망을 둘러쳤다. 출입은 정문만으로 하고 엄중히 체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로써 유격대와 농민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한 것이다(和田春樹著, 이종석 譯,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p.114.).

180) 위의 책 『對策』, pp.28-29 참조.

181) 집단부락의 自衛團員은 부락민을 감시하거나 부락을 방위했고 軍警의 토벌에 참여하여 길안내, 敵情偵察, 通譯 등을 임무로 했을 뿐만 아니라, 토벌군경과 경비기관 사이의 연락임무까지도 맡았다(朝鮮總督府, 『間島集團部落』, p.20 및 同府, 『間島集團部落建設

급하여 집단부락을 ‘防衛部落’, 즉 ‘武裝堡壘’로 바꾸었다.<sup>182)</sup>

집단부락의 건설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間島省의 경우 「第1次 集團部落 建設要綱」에 의하면, “① 朝鮮總督府 및 領事館의 지도·감독하에 「朝鮮人民會」가 주체가 되어 집단부락을 경영하고, ② 집단부락의 建設地點은 日滿軍警의 주둔지나 그 威力이 미치는 지방 혹은 부근에 경작할 수 있는 경지를 지닌 곳을 선정하며, ③ 집단부락에 수용할 대상자는 피난민으로서 부락을 구성하는 데에 적합한 소질과 노동력을 지닌 家族을 지닌 者여야 하고, ④ 집단부락 건설비는 總督府補助金과 「東洋拓殖株式會社」의 借入金으로 充당한다”<sup>183)</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집단부락의 건설지점은 반드시 위의 要綱대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다. 즉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구비한 곳을 발견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항일유격대의 세력이 미치는 곳---인용자)에 설치된 집단부락이 상당히 많았다.<sup>184)</sup> 이것은 吉林省 永吉縣의 경우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즉 영길현에서의 집단부락은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지점에 방어 거점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조성되었다.<sup>185)</sup>

1937년 이후 치안숙정공작의 중점지구로 결정된 三江省의 경우 치안숙정공작의 종합적인 主眼點이 집단부락의 결성에 두어졌다.<sup>186)</sup> 그것의 일환으로써 1937~1939년까지 삼강성에서의 집단부락 건설계획에 의하면,

概況」(『朝鮮總督府調查月報』 제6권 제3호(1935.3)), p.116.)

182) 위의 책 『現代東北史』, p.287.

183) 朝鮮總督府 編, 『間島集團部落』(發行地 未詳, 1936), pp.1-2 및 朝鮮總督府 外事課, 『間島地方に於ける集團部落の狀況』(『朝鮮總督府調查月報』 제7권 제4호(1936. 4)), pp.9-10 참조.

184) 朝鮮總督府, 『間島集團部落』, p.15.

185) 善生永助, 『吉林省永吉縣の保甲行政組織と其の運營狀態』(『滿鐵調査月報』 제15권 제12호(1935.12)), p.185.

186) 田中恒次郎, 『反滿抗日運動』,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東京, 時潮社, 1986), p.368.

農家 총호수 17만여 호 가운데 집단부락에 수용할 농가는 약 5만 8천호였다.<sup>187)</sup> 그 계획의 시행 결과 1937년 9월말 현재 樺川·勃利·依蘭·湯原·方正의 각 縣에서의 收容豫定戶數 14,007호 가운데 5,576호를 集團部落化하여 그 비율(소위 集家率)이 39.8%에 달하게 되었다.<sup>188)</sup>

이 집단부락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과 만주국 군대는 벽지까지 들어가 눈에 보이는 農家나 마을을 모조리 燒却시키거나 부수고 농민들에게 '집단부락'이 세워질 지정장소로 移住하라고 명령했다.<sup>189)</sup> 1939년 桓仁縣의 副縣長으로 있던 한 일본인이 이야기했듯이, 그 계획은 "마치 말을 몰듯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으로 몰아부친 것이었다."<sup>190)</sup> 이러한 집단부락계획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무자비했는가는 당시의 黑龍江省 湯原縣 太平川 농민들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군에 의해 소각·훼손되거나 일본군이 군중을 협박하여 헐어버린 民家가 약 7백여 채, 버려진 경작지가 4천여 상이었다. 태평천에 들어온 수백호를 제외한 나머지 民家는 모두 강요에 못이겨 각지로 도망가거나 흩어졌다. (집단부락으로의 移住를) 미루거나 (移住에) 반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모두 체포했다. 예를 들면 劉盛金屯의 사람들이 太平川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않자 일본군은 온 마을의 남녀노소들을 마당에 꿇어 엎드려 놓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이때) 劉其昌의 아내는 마침 임신 중이었는데 일본군은 인정사정 없이 그녀를 마당으로 끌어내서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놓고 무자비하게 됐다. (그 결과) 그녀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으며, 이로 인해 사내 아이도 곧 죽었다. 劉奎昌도 太平川으로의 이주를 미루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그 집안으로 기관총을 갈겨대어 그로 인해 그의 아내와 딸이 놀라서 병들어 죽었다.<sup>191)</sup>

187) 「康徳2年12月三江省集團部落計劃書」, 滿洲國治安部參謀司調查課 編, 「三江省地方ニ於ケル匪賊ノ活動ト其ノ對策(後篇)」(新京, 同課, 1938), pp.36-37(여기에서는 田中恒次郎, 앞의 글, p.370에서 재인용).

188) 田中恒次郎, 앞의 글, p.368.

189) Lee Chong Sik, 앞의 책, p.311.

190) 이시카기 사다카즈(石垣貞一), 「共匪地域の宣撫活動」, 滿洲國國務院總務廳 弘報處 編, 「宣撫月報」 제4권 제4호(1939. 4.), p.38.

191)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東北「大討伐」」(北京, 中華書

다음의 사례, 즉 당시의 保安工作委員會 第2宣撫 查察班의 報告에서도 일본군의 집단부락정책의 잔혹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安東省 通化縣의 경우) 수확기에 인민들은 집단부락의 건설이나 경비도로의 보수작업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작물들은 아직도 산간에 버려진 채 얼음이나 눈에 덮여 있다. 산간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미 집단부락에 이주해 있지만, 경작지에 있는 작물은 대부분 수확되지 못한 채 산간에 버려져 있다. 인민이 그것을 수확하려고 해도 討伐期에 해당하기 때문에 住民證이나 非住居地域 出入證이 없이는 자신들의 곡식도 거둬들일 수 없다. 이번 工作活動지역에는 부락이 12개인데, 주민은 3천戶 2만여 명이 살고 있다. 그 중에 먹을 식량이 모자라는 사람은 380호 2,200여 명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5월까지의 근근이 버티어 나가겠지만, 5,6월은 파종기여서 나무 꺾질 등으로 延命해 나갈 수 있다고 해도 다음 해에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한 경작을 할 수 없다고 한다.

1936년말 현재 通化縣에는 1만 3천여 명이 굶고 있으며, 이듬 해 봄 파종기까지는 全住民이 이러한 상태에 빠질 것 같다.<sup>192)</sup>

통화현에 있는 집단부락의 울타리는 대부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가옥의 건축도 불량하다. 가옥은 대개 나무껍질이나 짚으로 이어져 있고, 벽은 구멍투성이어서 찬 바람이나 눈을 막아낼 수가 없다. 옷이 없는 이들 주민은 겨우 불을 피우면서 연기 속에 취해 있다.

통화현 十一道溝에서는 집단부락의 설정 위치가 여러번 바뀌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하느라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또한 이러한 빈번한 변경 때문에 가옥의 건축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아 방안에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을 지경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추운 계절에 그들이 겪을 고통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193)</sup>

다음에 安東省 輯安縣의 경우 治安工作委員會 第1映畫班의 報告에 의

局, 1991), p.192.

192) 앞의 책 『對策』, pp.286-87.

193) 앞의 책 『對策』, p.290.

하면,

주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서 輯安 邑內를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반은 舊正月에는 식량이 모자랄 것이라고 한다.……현재 주민의 반은 寢食이 원활하지 못하다. 석유램프는 小學校에서 한개의 燈을 사용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송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집단부락을 急造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sup>194)</sup> 하천유역이 피폐한 원인은 奧地에서 경작을 할 수 없고, 하천의 좁은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防穀法(穀物運送禁止法)의 실시로 奧地에서 곡물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安東地域에서도 물자를 奧地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滿洲國軍이 여기에 많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식량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물자의 결핍이 더욱 심하다.<sup>195)</sup>

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은 집단부락 공사나 경비도로 건설에 강제로 동원됨으로써 자신들의 경작지에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거나 경작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농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집단부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거의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그들의 농토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떤 농민들은 파종기 직전에 강제이주를 당해 그 해에 아무 것도 심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추수기 직전에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sup>196)</sup> 이러한 무자비한 집단부락의 건설로 농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술한 보고서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桓仁縣 副縣長의 시찰보고서에서도 당시 집단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상이 어떠했는지를 낱낱이 언급하고 있다. 즉

194) 당시의 일제 당국자들도 간도지방의 집단부락민의 건강보건문제가 심각함을 토로하고 있었다(朝鮮總督府 外事課, 「間島地方に於ける集團部落の狀況」, 『朝鮮總督府調査月報』 제4권 제4호(1936.4)], p.26).

195) 앞의 책 『對策』, p.287.

196) Lee Chong Sik, 앞의 책, p.311.

식량부족 현상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추수가 끝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식량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수없이 정부로 날아들고 있다. 산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느릅나무 껍질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나무나 식물이 아직 싹을 틔우지 않은 3월부터 5월 사이가 최악의 상황이다. 농민들이 산 중턱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구하고 있는 모습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온 편이다. '생기가 돈다'는 것은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말이다. 그들의 얼굴빛은 검청색 아연빛에서 흑색으로 바뀌고 있다. 바로 죽음의 빛깔이다.<sup>197)</sup>

라고 하듯이, 집단부락에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은 飢餓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집단부락의 설치 결과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사실은 <표-11>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즉 <표-11>에 의하면 집단부락으로 이주한 후 농민들의 경작면적은 24.1% 감소했다. 이처럼 집단부락으로 이주한 후 농민들의 경지가 줄어들게 된 것은, 후술하겠지만 경작지의 허가범위가 집단부락으로부터 사방 4km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 범위 밖의 輿地에 散在해 있던 농민들의 경지나 遊擊區內에 있던 경지가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집단부락으로 이주한 후의 농민 1호당 경지면적 7,010坪(약 3.9 畹<sup>198)</sup>)은 間島省 평균 4.7畹<sup>199)</sup>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게다가 집단부락 농민들의 경지가 축소됨에 따라 役畜도 35.6%가 감소되었다.

#### <표-11> 集團部落으로 移住한 後의 農民들의 經濟的 諸動向

	耕作面積	役畜	小作人	賦役日	部落費	其他公課	雇傭日	農家戶數
移住前	9,234	90	45	700	594.6	441.00	80	85

197) 石垣貞一, 앞의 글, p.37.

198) 1畹은 1,800坪에 해당한다(앞의 책 『對策』, p.40.).

199) 위의 책 『對策』, p.41.

移住後	7,010	58	61	3,598	1,436.58	321.51	203	103	
增	實	-2,224	-32	+16	+2,898	+841.98	-119.49	+123	+18
減	%	-24.1	-35.6	+36.0	+414.60	+141.60	-27.09	+153.8	+21.2

<출전> 앞의 책 『對策』, pp.40-51에서 작성.

<비고> 위 표는 1936년 9월 17일에 間島省 延吉縣 茶條溝仲坪村 集團部落의 농민 103戶(中國人 4戶, 朝鮮人 99戶)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위 표의 단위는 각각 坪, 頭, 名, 圓, 日, 戶이다. 雇傭日이란 日工(날꾼팔이)을 1년 동안 고용한 날의 합계이다. 경지면적은 1戶當 면적을 의미한다. 公課金額數는 73戶에 대한 1년간의 금액을 합계한 것이다.

<표-11>에서 보여주듯이 상대적인 농가 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작지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경지부족 현상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경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들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빌려 농경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표-11>을 보면 집단부락에 이주한 이후 소작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賦役勞動日數는 移住 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격증했는데, 이것은 집단부락민들이 얼마나 각종 勞役に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이 부역노동에 수시로 동원되었다면 필연적으로 농번기에는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日工 雇傭日數의 급격한 증가이다. <표-11>에 의하면 日工 고용일수가 移住 후에 1.5배 가량으로 늘어났다. 즉 집단부락으로 이주한 농민들은 집단부락이나 경비도로 등의 건설에 수시로 동원됨으로써 농번기의 부족한 일손을 賃勞動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노동력 판매를 통해 생계를 보조하고 있던 농민들은 부역동원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박탈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집단부락으로 이주한 후 농민들은 부역동원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日工을 고용함으로써 勞賃費를 지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 판매를 통한 賃金 收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농민들의 생활은 더 곤란해졌던 것이다.

게다가 농민들은 잡다한 公課金을 짊어져야만 했다. <표-11>에 의하면

部落費는 이주 후에 140% 정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諸公課金の 賦課는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더 짓눌렀을 것이다. 실제로 當部落의 조사대상 農家 103호 가운데 3호만이 債務가 없는 실정이다.<sup>200)</sup>

비교적 집단부락계획이 잘 된 부락들도 농민들의 생계에 惡影響을 미치긴 마찬가지였다. 경작지가 좁아졌고 주거지와 경작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으며, 소유지보다는 소작지가 많았고 소작료·세금·부역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빛의 지옥'에 떨어졌다.<sup>201)</sup>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가 내세운 집단부락 건설의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주민생활의 제고'라는 측면은 실패로 끝난 것이며, 이것은 일제의 기만적인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가 실시한 집단부락정책이 치안유지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민분리' 기능 이외에 '농민생활의 향상발전'이 불가결한 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전자가 우선시되고 후자는 경시되었기 때문에<sup>202)</sup> 농민들은 塗炭에 빠졌던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遊擊區內에 散在되어 있는 모든 작은 부락을 燒却·毀損시키고 민중들을 강제로 한 곳에 移住시켜 대량의 '集團部落'을 修築한 日帝는, 더 나아가 集團部落民에 대한 경제적인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였다.<sup>203)</sup> 이것은 항일유격구와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經濟封鎖의 일환으로써, 농민들의 각종 물자가 항일연군에게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집단부락민에 대해 일제가 취한 경제적 통제의 실상은 어떠한가. 일제는 집단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의 토지를 집단부락으로부터 사방 4km 이내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食用으로 할 수 있는 土豆·玉米 그리고 豆類 등의 작물을 심지 못하게 했다. 더욱이 수확할 때는

200) 앞의 책 『對策』, p.52.

201) Lee Chong Sik, 앞의 책, p. 314.

202) 小林英夫, 「日本の滿洲支配と抗日運動」, p.248.

203) 周保中, 「憶東北抗日遊擊戰爭」, 『星火燎原』 제4권(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1), p.374.

반드시 耕地를 調査하고 곡물을 창고에 넣게하여 농민이 몰래 糧食을 남겨 두었다가 항일부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했다. 日帝와 滿洲國政府는 유격구 부근의 여러 都市에서 布匹·棉花·신발類 그리고 食鹽의 판매 수량을 엄격히 통제했다. 게다가 어떠한 물자든지 유격구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무릇 식량·의류·약품 등의 물자들을 항일부대에게 공급해주는 者나 대신 購買해주는 者는 '通匪'로 단정하여 총살시켰다.<sup>204)</sup>

물리적으로 유격대와 농민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건설된 집단부락은 초기에는 空間적으로 이 兩者를 떼어놓는 데에 어느 정도 實效를 거두었지만, 心情的인 면까지 이 양자의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했다. 이것을 입증시켜주는 것이 다음과 같은 보고서이다. 즉 이 보고서에서

집단부락 주민들 가운데에는 틈만 있으면 도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의 선전을 완전히 받아들여 영주하려고 한다. 이것은 부락이 叛徒들에게 식량과 그밖의 편의를 제공해줌으로써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주민들 가운데 상당 수는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은밀히 반도들과 합세하려고 한다.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될 경우 군과 경찰의 反暴動工作은 난관에 부딪칠 것이며, 만주국이 수립되기 이전처럼 반도들이 이 省의 여러 지역을 지배하고 말 것이다.<sup>205)</sup>

라고 한 것처럼, 일제의 무자비한 집단부락계획에 의해 古來의 생활방식과 기반을 박탈당한 채 궁핍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처지를 공감하고 있던 공산유격대들에게 心情的으로 동조했던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던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인용한 桓仁縣의 일본인 副縣長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4) 앞의 책 『現代東北史』, pp.287-88.

205) 間島省政府, 「秋冬期肅正工作に隨伴する行政浸透工作」, 『宣撫月報』 제4권 제10호 (1939.11)], pp.92-93.

농민들은 無知하다. 그러나 자신들이 왜 피폐하게 되었는지를 모를 만큼 무지하지는 않다. 공산당원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농민들은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 이에 따라 (공산당원들을) 무턱대고 추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산당원들이 生計問題처럼 실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호소하게 되면, 끊임없는 집단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공산당원들이 농민들을 선동하는 주요 好材는 집단부락 및 안전도로의 건설, 지속적인 토지의 황폐화와 기아현상, 인구의 激滅들이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공산당원들의 선전이 아니라 선전거리가 농민생활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發火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름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sup>206)</sup>

즉 日本人 副縣長의 말처럼 농민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처지를 동정해주고 또한 자신들의 처지를 열악하게 만든 세력이 누구인지를 자신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준 데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집단부락건설 초기에 농민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들을 心的·物的으로 돕고자 했지만, 일제의 對民工作, 소위 ‘匪民分離’工作이 강화되면서 집단부락 속에 틀어박혀 엄격한 감시 속에서 궁핍한 삶을 강요받고 있던 농민들은 우선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의 농민들의 처지로서는 항일유격대들의 安危를 고려할 여유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한편 항일연군의 입장에서도 일제가 집단부락을 설치하고 경제봉쇄를 엄격히 실시한 결과 항일연군과 민중의 연계가 끊어지고 항일부대의 物資補給路가 단절되어 항일연군은 敵情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게 됨으로써 항상 敵軍의 습격뿐만 아니라 飢餓 및 추위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 밖에 日滿軍警은 정치적으로 투항을 유도하는 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많은 ‘宣撫工作班’을 만들어 몇몇 동요분자들을 買收하거나 腐蝕

206) 石垣貞一, 앞의 글, p.39.

시켜서 투항이나 반란을 이끌어내어 항일연군과 기타의 항일무장세력을 와해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항일연군의 활동은 매우 큰 제한을 받게 되어 항일유격대는 원래 있던 유격구를 떠나 새로운 유격구를 개척하거나 活路를 타개하기 위해 집단부락을 공격해서 파괴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집단부락 건설 초기에는 항일유격대, 특히 공산유격대가 집단부락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다.<sup>207)</sup> 그 때문에 日滿軍은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는 동시에 건설 중의 집단부락에 대해 특별히 경비를 강화해야 했다.<sup>208)</sup> 실제로 1937년 8월부터 1938년 6월까지 11개월 사이에 三江省과 牡丹江省에서 집단부락이 항일무장세력으로부터 받은 襲擊回數는 총 79회였다.<sup>209)</sup>

그런데 항일유격대가 집단부락을 습격하면서 집단부락민들 사이에서는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애당초 유격대는 집단부락을 공격하여 일본의 전면적인 宣撫工作을 저지하고 이들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들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후 일본이 초토화전술을 실행에 옮기고 집단부락계획을 한층 더 강하게 추진하자, 유격대는 식량을 얻기 위해 집단부락을 공격해야만 했다.<sup>210)</sup>

유격대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집단부락을 공격하면서 대중들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부락이 쉽게 외부의 침입을 받게 되면 일본과 만주국 당국은 공범자(소위 通匪---인용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기 마련이었고 이것은 곧 일제의 보복을 초래

207) 항일유격대는 집단부락의 건설이 자신들의 세력신장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활동범위를 극도로 축소시킬 것을 우려하여 세력을 동원해서 部落民을 유혹하거나 건설재료의 수집·운반 등의 작업을 방해했다. 또한 항일유격대는 건설 중에 있는 집단부락을 습격하거나 방해공작을 시도했다. 『間島集團部落建設概況』, 『朝鮮總督府調査月報』 제6권 제3호(1935.3), p.112).

208) 『關東軍第二獨立守備隊의 集團部落에 관한 資料』(1936년 7월 1일)에 의한 것으로,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東北「大討伐」』(北京, 中華書局, 1991), p.186에 수록되어 있다.

209) 田中恒次郎, 위의 글, p.372.

210) Lee Chong Sik, 앞의 책, p.362.

했다. 또한 유격대의 저항이 완강하면 할수록 부락민들의 사상자만 늘어났고 부락은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부락이 전투로 파괴될 경우 이것을 복구해야 하는 것은 부락민 자신들이었다. 더욱이 어느 곳에서나 전투원이 아닌 일반대중의 식량은 모자랐고 유격대가 가져간 식량을 메꾸어 줄 만한 것이 없었다.<sup>211)</sup>

유격대의 입장에서 보면 식량과 보급물자를 빼앗는 일은 정당한 것이었다. 결국 유격대에게는 집단부락이 일본의 보급품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시설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격대가 한 푸대의 곡물을 가져가면 주민들의 식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집단부락내에서 식량은 엄격하게 배급되었고, 극심한 식량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본은 유격대가 가져간 식량이나 보급물자를 보충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격대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집단부락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飢饉로 허덕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통거리를 더해 주는 것밖에 안되었다.<sup>212)</sup>

따라서 집단부락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유격대의 공격에 진저리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유격대가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집단부락을 공격할 때마다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일본제국주의 자나 아니면 중국민족이나 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이나 아니면 유격대의 생존이나를 선택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무자비하게 유격대를 추격하고 유격대가 그들의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는 전망이 흐려지자, 대부분의 인민 대중들은 항일선전에 귀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유격대는 대중의 지원없이 생존할 수 없었다.<sup>213)</sup>

이처럼 일제의 對民工作, 소위 '匪民分離' 政策은 시행과정에서 농민들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강행됨으로써 농민들을 곤궁의 늪 속에 빠뜨리는 등 자체의 제모순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211) Lee Chong Sik, 위의 책, p.363.

212) 위와 같음.

213) 위와 같음.

이 지나면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일제의 대민공작이 강화됨으로써 유격대와 농민들의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격대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갈되었던 것이다. “중국 인민이라는 거대한 大洋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같은”<sup>214)</sup> 존재인 유격대는 물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각박한 상황에서 유격대원들의 심리에도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항일연군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魏拯民의 말에 의하면,

敵(日滿軍警)은 1938년 여름에 程斌의 變節과 투항한 유격대원을 이용하여 우리들에 대해 파괴 및 離間政策을 적나라하게 工作함으로써 부대내의 사상은 상당히 변화했다.<sup>215)</sup> 과거에는 전쟁이 격렬하거나 생활이 곤란해도 不服하는 일이 없었고 일반의 사상이 견고하고 불변하여 투항하면 (적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내의 변절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적이 程斌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자, 부대원들은 점차 투항한 사람들도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대내의 일반 사상은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이제는 투항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다. 일부 부대원은 일본 도적들의 협력자가 되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일부는 투항을 하면 일시적으로 목숨을 보존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다. 이들은 아무런 희생정신도 없이 자기의 구차한 생존을 희망하여 투항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다.<sup>216)</sup>

라고 하듯이 일제가 ‘以夷制夷’式 工作, 다시 말해 투항한 유격대원들을

- 214) Ted Allan & Sydney Gordon, *The Scapel, the Sword,--the story of Dr. Norman Bethune, McClelland and Stewart Limited, Toronto. Montreal. 1952* [여기서는 천희상 역, 『닥터 노먼 베클슨』(실천문학사, 1992), p.304에서 인용].
- 215) 楊靖宇 밑에서 第1師 師長을 맡았다가 일제에게 투항한 程斌과 그 부하 몇 사람을 포함한 150명으로 구성된 경찰대가 6개월 동안 輯安縣에서부터 通化, 臨江, 金川, 甯江, 撫松, 樺甸縣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楊靖宇를 추격하면서 9차례 전투를 벌였다(通化省公署「報告」, p.186[여기서는 Lee Chong Sik, 앞의 책, p.333에서 재인용]).
- 216) 魏拯民, 「中國共產黨南滿省委員會書記兼東北抗日聯軍第1路軍副司令魏拯民ヨリ國際共產黨中國代表委員等ニ宛タル狀況報告書(1940년 4월10일)」[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編, 『思想彙報』 제25호(1940. 12)], pp.66-67.

이용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의 所在를 파악하고 그들의 투항을 권유하는 방법<sup>217)</sup>을 채택한 후, 유격대원들은 심리적으로 동요하면서 그들의 사기도 저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일유격대가 기존의 세력을 온존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東北抗日聯軍 第1路軍에 관한 다음의 보고서는 유격대원들의 심리적 동요와 사기 저하에 따른 항일연군의 分裂樣相 및 沒落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第1方面軍의 부대는 (1940년) 4월경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曹亞範 同志는 부대내의 叛徒에게 살해되었고 제1방면군 부대의 대부분은 와해되어 현재 일부의 간부와 소수의 부대원이 계속해서 항일구국의 光榮한 사업에 힘쓰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법이 잘못된다면 모두 와해될 우려가 있다.

第2方面軍의 부대는 (1940년) 봄에 朝鮮人 匪團에게 습격을 받은 후 식량의 곤란 때문에 반도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指揮(제2방면군 政治主任)의 부당함으로 인해 일부는 와해되었고 나머지 부대는 불온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금년 봄에 負傷한 呂主任(呂伯岐) 同志는 某處에서 치료 중 叛徒의 密告에 의해 적의 포로로 되어 生死가 불명하다.

第3方面軍과 警衛旅는 ...소수의 동요분자의 逃走나 投降 등이 있었고 ...舊隊員 및 일부 간부는 부락을 습격할 때 피해를 입었다. 현재 각 부대의 일반적인 상황은 (다수의 대원 및 간부)가 정신적으로 피로와 권태를 느끼고

217) 日帝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에 대해 魏拯民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물질과 性的問題를 이용하여 우리 부대의 落伍分子를 유인하여 혁명대열을 떠나게 하고 있다. 부대생활의 어려움과 性的問題 기타 식량문제(쌀, 밀가루, 술, 생선의 부족)의 결점을 노리고, 각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小部隊의 동지들을 매수하기 위해 비교적 예쁜 娼妓들(18세나 19세)을 보내 性的問題를 곧바로 해결하게 하거나 우리의 활동구내에 남녀 性交사진(裸體)을 배포하여 우리 부대의 젊은 군인들의 투항을 회유했다. 투항한 군인들은 항상 개인 촬영을 하여 그 사진을 이용하여 우리 부대원 동지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재료로 삼았다. 우리의 교통망이 두절되어 연락이 잘 안되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각처 부대에 공작원을 보내어 이런 저런 부대가 투항했다는 말을 퍼뜨려 우리 사이에 불안한 감정을 품게하는 것 등이다”(앞의 魏拯民의 報告書, p.69.).

있고 행동상에서는 동요를 하고 있는데, ... 동요분자는 공공연히 不穩한 言動을 드러내고 있으며, .....(218)

위 보고서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킨 유격대원들이 부대를 이탈하거나 투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란을 일으켜 유격대의 지도자들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등 유격대의 내부에서는 이미 분열의 정도를 넘어 와해의 경향까지 露呈되고 있었다. 이처럼 상황이 열악하게 되자,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간부까지도 이미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채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술한 일제의 對民工作, 특히 집단부락건설 및 항일유격대에 대한 경제봉쇄로 말미암아 1938년 이후에는 「동북항일연군」의 투쟁이 매우 곤란한 단계에 접어들면서<sup>219)</sup> 항일연군의 세력도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1938년 이후 「동북항일연군」의 세력이 급격하게 퇴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크게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前者에 대해서 위증민은 두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유격대 지도자들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에는 힘썼지만, 그 군사력을 장기간 지속시켜줄 수 있는 대중들에 대한 공작, 다시 말해 地方工作을 경시하거나 방기했다는 것이다. 둘째 수년간의 격렬한 遊擊戰과 일제의 잔혹한 여러 제도로 인해 幹部들을 보충할 수 없어서 諸工作을 담당할 간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sup>220)</sup> 다음에 後者에 대해서는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日滿의 군사력증강과 그 기반의 정비(경비도로의 건설 등)에 있다. 둘째 집단부락건설(소위 集家工作)과 경제봉쇄(配給制를 특징으로 한)에서 보여주듯이 일제가 농촌주민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항일연군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었던 데에 있

218) 魏拯民, 「東北抗日聯軍副司令魏拯ヨリ民國國際共產中國代表康生等ニ宛タル第二回報告書 (1940년 7월 1일)」,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思想彙報」, 제25호(1940.12)], pp.78-79.

219) 앞의 책 「現代東北史」, p.288.

220) 앞의 魏拯民의 보고서, pp.72-73 참조.

다. 셋째 일제가 항일연군이 집결한 三江省지역에서 대규모의 식민지적인 토지수탈<sup>221)</sup>을 통해 地主權力을 재편성하여<sup>222)</sup> '抗日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가장 기초영역인 식민지 지배를 관철할 수 있었던 데에 있다.<sup>223)</sup>

상술한 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日帝의 對民工作(특히 集團部落政策)은 항일유격대, 특히 공산유격대와 농민들의 밀접한 관계를 단절시켜서 공산유격대의 인적·물적 供給源을 枯渴시키려고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수 많은 고통과 궁핍을 안겨주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항일유격대와 농민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 결과 농민으로부터 고립된 항일유격대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 VI. 맺 음 말

일제의 만주침공으로 격화된 만주항일무장투쟁은 人的 構成, 투쟁 목표, 자연·지리적 환경, 경제적 기반 등의 질적 특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항일유격대들의 통일전선하에서 전개되었다. 이들 항일유격대들의 질적 특성은 농촌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항일유격구의 양상에 따라 구

221) 「滿洲拓植公社」에 의해 移民用地로서 土地買收가 가장 대규모로 실시된 곳은 三江省과 東安省인데, 만주국정부에 의한 토지매수와 합하면 그 비율은 三江省의 경우 1941년 3월까지의 총면적 9만 평방km 가운데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제가 對滿農業用地로서 1941년 3월부터 4월까지 취득한 토지는 만주국 토지 총면적의 14.3%에 달했다. [喜多一雄, 『滿洲開拓論』(東京, 明文堂, 1944), pp.364-65 및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下の民族革命運動』, pp.419-20.]

222) 종래의 地主支配體制를 일본지배층하에서의 종속적 권력으로 재편성한 것을 의미한다 (西村成雄, 『東北の植民地化と「抗日救亡」運動』, p.55.)

223) 西村成雄, 『東北の植民地化と「抗日救亡」運動』, p.55.

정되고 있었다. 즉 교통이 발달함과 동시에 상품경제가 발전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계급분화가 진전되어 계급모순이 첨예화된 농촌사회에서는 공산유격구가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자연·지리적 요인으로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상품경제의 발전이 미미하여 계급의 분화가 진전되지 못한 결과 생산수단의 소유를 둘러싼 계급모순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농촌사회에서나 혹은 阿片 등의 재배를 통해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고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에서는 농민유격대 및 민족주의 계열의 유격대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자연·지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기반을 달리했던 항일유격대들은 질적 특성에 따라 對民活動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공산유격대는 농민에게 폐해를 거의 끼치지 않았고 농민들의 처지를 동정하였으며, 그들에게 항일구국의 신념을 고취시키면서 그들의 삶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國家像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다른 유격대(특히 ‘土匪’라고 불리는 유격대)들은 滿洲軍閥軍·日本軍·滿洲國軍과 크게 다름없이 농민들에게 많은 폐해를 끼쳤다. 그 결과 前者는 농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人的·物的 支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1930년대 만주항일무장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와는 달리 後者는 농민들과의 관계가 疏遠해졌고 그들로부터의 자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농촌사회에서의 기반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산유격대가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농민사회를 기반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해나가자, 일제는 공산유격대의 人的·物的 供給源인 농촌사회 혹은 농민들로부터 공산유격대를 분리·소멸시켜서 만주에서의 식민통치를 확고하게 다지려고 했다. 이를 위해 日帝는 소위 ‘匪民分離’政策의 일환으로써 集團部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집단부락정책은 추진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궁핍을 가져다 주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匪民分離’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일제의

집단부락정책에 의해 농민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항일유격대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일유격대원들 가운데 동요하거나 투항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 결과 항일유격대의 세력은 점차 감소하면서 항일유격대는 무장투쟁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잠복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만주에서의 항일유격대는 농촌사회, 다시 말해 농민들의 인적·물적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물과 물고기로 비유되는 농민과 유격대의 관계'를 상기해 본다면, 일제에 의해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즉 항일유격대)는 결국 물(즉 농민)이 없는 곳에서는 생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농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